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벨기에 (The Kingdom of Belgium)
면적	30,528 km ² (자료원 : 벨기에 통계청)
수도	브뤼셀(Brussels)
민족(인종)	
언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3개 공용어)
종교	가톨릭(57.1%), 기독교(5.1%), 무슬림(6.8%), 유대교 및 정교회(1%), 무신론(10%), 무교 (20%)
기후	벨기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여름에는 12-25℃, 겨울 0-10℃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4계절 모두 평균 기온이 상승해 0.4도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강우량은 780~850mm 사이이며, 가을과 겨울에 비와 안개가 잦은 편이다.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되는 편이나 2021년 여름 집중 호우가 있었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국가원수	○ 국가 원수: 필립(Philippe, 제7대 국왕), 취임일: 2013년 7월 21일 ○ 연방정부 총리: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취임일: 2020년 10월 1일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01-03-23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사증면제협정	1970-01-01		
투자보장협정	1974-01-01		
항공협정	1975-01-01		
이중과세방지협정	1977-01-01		
경제협력협정	1978-01-01		
문화협정	1978-01-01		
해운협정	1987-01-01		
운전면허 상호승인 교환각서	1990-01-01		
이중과세방지협정 보조협약개정 서명	1994-01-01		
항공협정 개정	1995-01-01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5-07-01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동맹투자보장협정 서명	2006-12-01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2012-09-29		
워킹홀리데이 협정	2014-04-01		
한-벨기에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개정 의정서	2015-12-01		
한- 벨기에 취업관광 프로그램 협정	2016-07-02		

한국교민 수

5,139 명 (자료원 : KOSIS (국가통계포털)/ 2021.10.12(자료 갱신일))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6년 7월부터 한국-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 2014년 4월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던 한국-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프로그램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참가자 숫자는 한 해 200명으로 제한된다.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는 것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체류 기간 도중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만 18~30세 이하인 국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이해 폭이 넓혀지고 나아가 한국과 벨기에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9년 3월, 필립 벨기에 국왕 방한 : 벨기에 국왕은 1992년 이후 27년만인 2019년 3월 26일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3박 4일로 진행된 국왕의 방한에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한국-벨기에 비즈니스 포럼, 스마트시티 세미나, 경제인과의 오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한국-벨기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01년 수교 후,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하는 동시에,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화학, 제약, 물류 산업 등 기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등 신규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추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한에는 벨기에 정부인사, 80명의 기업총수, 대학 총장 등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했다.

◦ 2020년 5월, 양국 정상 코로나 대응 위한 정상통화 : 필립 국왕은 5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벨기에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의 마스크 지원에 감사의견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벨기에 내 코로나가 확산되자, 한국전쟁 당시 총 3,498명을 파병 지원해준 벨기에에 마스크 2만 장과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양측 정상은 코로나 극복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 2022년 8월 4일 벨기에 미셸 호프만 (Michel Hoffman) 국방 총장은 벨기에-한국 간의 군사 교류 확대를 위해 방한했다. 호프만 총장은 합동 참모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벨기에가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과 양국 군사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호프만 총장은 또한 한국의 제 2함대 사령부와 도라 전방대 등의 안보 현장을 방문했다. 이와 같은 벨기에 국방 총장의 방문은 한반도 안보상황 이해와 양국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한국-벨기에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 2019년 11월 13일 한국과 벨기에 간 제약·바이오 산업 협력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2017년 처음 개최된 후 4회차를 맞는 행사로 같은 해 3월 벨기에 국왕 방한 사절단의 서울행사 후속사업으로 진행됐다. 국내 및 벨기에 분야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비롯해 벨기에 바이오 클러스터(FlandersBio, BioWin)와 현지 유망 제약·바이오테크 기업 CEO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뿐만 아니라, 세계적 제약·바이오 강국인 벨기에의 기술력과 한국의 자본 시장 연결 시도를 통해 양국 간 협업 추진을 보다 가속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벨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는 올해에도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로 향후 우리 기업들과 벨기에 관련 업체 간 기술이전, 공동연구, 투자 등 협업을 통한 제약 바이오의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2021년 3월,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화장품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했다. 아마존코리아·화장품 컨설팅 기업 바이오리우스(BIORIUS) 및 벨기에 바이어 6개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 행사는 유럽 화장품 시장 필수 인증절차 및 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유력 잠재바이어의 구매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화장품기업들의 성공적인 유럽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화장품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동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매칭된 벨기에 바이어사와의 120건 화상상담이 진행되었다.

◦ 한국-유럽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개최 : 2021년 10월,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유럽 연합 집행위 및 BSMA Europe, 플란더스 백신 등 현지 백신관련 정책기관, 협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백신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행사를 통해 양측 기업 간 공동 R&D 및 위탁생산, 원부자재 공급 등 협력 추진을 통해 백신사업 생태계 고도화 및 글로벌 백신 허브 실현을 위한 협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실본부장 등 양측 고위급 인사를 비롯 국내 외 유관기관 및 현지, 국내 기업 15개사 등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 한국 유미코아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연구소 개소 : 2022년 5월 10일, 벨기에 기업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 (Umicore)사의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연구소가 천안에 준공되었다. 벨기에 유미코아 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및 배터리 재료를 생산하는 소재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양극재 생산 선두업체 중 하나로 1991년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 및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사의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 개발 시설로 5년간 총 360억원 투자 및 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전망이다.

문화

◦ 벨기에 왕립미술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 : 연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벨기에 최대 규모 미술관인 왕립 미술관에 서 2018년 10월부터 비유럽권 언어 최초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ASEM 정상회의 동행차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9일 진행된 서비스 개시식에 참석했으며, 한국인이 벨기에 예술의 정수를 더 가깝게 관람할 수 있게 돼 뜻깊고 앞으로 세계 주요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었는데, 기존 60개 작품에서 36개가 추가되어 총 96개 작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2013년 11월 설립되었으며, 금요 영화제, 전시회, 공연, 요리 및 문화강좌,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의 언어,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자원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벨기에 겐트 대학교 송도 캠퍼스 설립 : 2014년 9월 1일 벨기에의 겐트 대학교가 인천 송도에 생명공학자 육성을 위한 캠퍼스를 설립했다. 겐트대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는 최초의 유럽대학으로 분자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등 총 3개의 학부과정이 있으며 졸업 시 본교 학위가 수여된다. 이 밖에도,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7년 11월 30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지도 및 전문기술, 학술 인프라 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 농업기술 발전 위한 협력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 2021년 한-벨 수교 120주년 : 2021년은 한국-벨기에가 수교를 맺은 지 120년 되는 해로 양국 간 다양한 문화적 협력행사가 개최되었다. 3월에는 수도 브뤼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대형 상징물이 부착된 트램 래핑 광고, 공공외교 플랫폼 '미디어아트월' 내 한국작품 전시 등이 진행되었으며 9월에는 브뤼셀에서 대규모 K-festival 행사가 개최되어 수만명의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 2022년 4월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메이드인 아시아' 박람회에서 한국 문화원은 K-팝과 오징어 게임을 선두로 높아진 한류 인기를 반영해 '한국 문화존'을 운영했다. '메이드인 아시아' 박람회는 벨기에에서 가장 큰 아시아 문화 축제로 2008년부터 시작해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으며 현재는 10만 여명 규모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가을 행사는 9월) 한국 콘텐츠 및 관련 부스는 2015년부터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점차 참여 부스와 방문객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1.82	2.15	-5.66	6.2	
명목GDP (십억\$)	543.4	533.3	515.3	578.8	
1인당 GDP (PPP, \$)	51,126.67	51,944.17	48,720.11	51,914	
1인당 명목 GDP (\$)	47,554.75	46,414.44	44,594.38	47,400	
정부부채 (% of GDP)	99.8	98.1	114.1	108	
물가상승률 (%)	2.3	1.2	0.4	3.2	
실업률 (%)	6	5.4	5.6	6.3	
수출액 (백만\$)	417,170	419,305	388,110	487,451	
수입액 (백만\$)	402,426	401,951	365,928	456,244	
무역수지 (백만\$)	14,744	17,354	22,182	31,207	-
외환 보유고 (백만\$)	38,963.5	45,134.3	33,159.6	39,050.5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18	1.12	1.14	1.18	

〈자료원 : World Bank, 벨기에 중앙은행, Statista〉

나. 경제 동향

2022년 유럽 전역의 백신 접종 완료와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로 벨기에 역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에너지 가격이 '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였고, 전쟁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및 EU의 경제 제제가 지속되며 장기적인 침체가 전망된다. 벨기에의 경우 러시아 천연가스를 비롯한 직접적인 에너지 의존도는 낮은 편이나, 가스 가격 상승으로 전기를 비롯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산업적으로 연관이 큰 독

일의 경제 침체 영향을 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증가로 식품, 원자재, 산업 생산자 물가 등이 크게 증가해 벨기에 9월 인플레이션 지수는 11.27%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EU는 러시아 산 석탄(5차 제재)과 석유(6차 제재) 수입 금지를 포함한 대러 제재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석탄은 8월부터, 원유는 12월 (정제유는 '23년 2월) 부터 역내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의 점령지 국민 투표 실시로 전쟁 양상이 고조됨에 따라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 경제 전망

2023년 벨기에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이후 노출된 공급망 문제가 전쟁 영향으로 지속되며 경제 침체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인플레이션, 산업 경쟁력 저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벨기에 경제 성장률이 2022년 2.4에서 2023년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벨기에 중앙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벨기에의 경제성장률에 2022년, 2023년 총 2년에 걸쳐 1%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8,452,199,412
2	프랑스	45,981,464,478
3	네덜란드	37,763,221,749
4	영국	21,656,397,181
5	미국	19,181,868,815
6	이탈리아	15,417,006,684
7	인도	9,150,645,692
8	스페인	8,857,332,474
9	폴란드	7,269,576,010
10	룩셈부르크	6,995,973,71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5,029,866,988
2	프랑스	42,810,895,518
3	네덜란드	36,256,459,907
4	미국	23,571,449,807
5	영국	19,265,623,205
6	이탈리아	14,817,519,065
7	스페인	8,509,610,135
8	폴란드	7,371,721,140
9	인도	7,260,538,537

10	룩셈부르크	6,835,670,618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9,806,370,377
2	프랑스	39,650,576,532
3	네덜란드	34,707,705,715
4	미국	25,901,243,747
5	영국	18,066,259,070
6	이탈리아	14,820,572,286
7	스페인	8,602,887,288
8	중화인민공화국	7,621,923,894
9	폴란드	7,137,767,416
10	룩셈부르크	5,774,869,35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72,477,788,402
2	독일	47,751,842,568
3	프랑스	36,063,450,074
4	아일랜드	18,909,643,804
5	미국	18,476,651,872
6	영국	15,237,533,005
7	이탈리아	13,426,639,459
8	러시아	8,767,096,346
9	중화인민공화국	8,353,107,307
10	일본	8,204,039,94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65,020,868,050
2	독일	45,481,069,902
3	프랑스	35,666,955,294
4	미국	18,141,357,469
5	아일랜드	15,049,602,573
6	이탈리아	13,655,954,382
7	영국	13,058,700,116
8	일본	10,113,353,548
9	중화인민공화국	8,664,791,226
10	스위스	8,243,009,23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57,491,660,647
2	독일	43,609,482,837
3	프랑스	33,758,135,745
4	미국	16,221,517,537
5	이탈리아	14,956,830,297
6	아일랜드	14,923,767,374
7	영국	11,583,893,850
8	중화인민공화국	11,267,257,286
9	일본	9,205,047,662
10	스위스	8,183,854,596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4,435,261,648
2	271019	기타	11,797,294,493
3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0,746,455,370
4	293379	그 밖의 락탐	7,013,300,437
5	271121	천연가스	6,945,656,635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629,134,008
7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6,164,198,315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447,850,912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294,095,410
1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255,932,39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6,400,410,610
2	271019	기타	10,280,473,265
3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9,223,840,181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869,651,211
5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780,910,567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608,448,449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4,784,139,251
8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488,762,046
9	710239	기타	3,794,394,505
10	271121	천연가스	3,596,040,73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9,480,059,727
2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1,604,700,757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654,332,798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7,413,734,765
5	271019	기타	6,538,123,766
6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5,573,206,129
7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3,535,710,369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469,017,122
9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3,450,316,826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43,868,334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574,275,879
2	271121	천연가스	11,361,087,014
3	300490	기타	9,866,927,925
4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9,179,717,301
5	271019	기타	7,576,160,933
6	293379	그 밖의 락탐	7,295,463,845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6,750,771,487
8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6,477,080,276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22,864,531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305,702,09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631,725,670
2	300490	기타	14,083,202,113
3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7,517,041,384
4	271019	기타	6,534,738,684
5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418,660,888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539,766,729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535,679,922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533,377,129
9	271121	천연가스	5,202,263,862
1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598,514,69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5,744,807,32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767,907,058
3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7,924,992,024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518,111,498
5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5,318,431,049
6	271019	기타	4,892,288,252
7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4,511,297,467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141,665,457
9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 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3,838,197,495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804,061,657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3,246	1,496	1,750
2019	2,707	1,323	1,384
2020	2,753	1,552	1,201
2021	4,438	3,424	1,014
2022	3,318	1,813	1,50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251	건설중장비	878	2	876
2	2140	합성수지	562	48	513
3	7411	승용차	476	67	409
4	6134	아연도강판	212	0	212
5	7419	기타자동차	0	0	-1
6	6133	냉연강판	174	4	169
7	1336	윤활유	192	9	182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00	66	33
9	2262	의약품	237	1,515	-1,279
10	6132	열연강판	78	19	5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251	건설중장비	595	1	594
2	2140	합성수지	432	28	404
3	7411	승용차	221	0	221
4	6134	아연도강판	217	0	217
5	7419	기타자동차	195	39	156
6	6133	냉연강판	176	2	174
7	1336	윤활유	145	6	139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31	47	84
9	2262	의약품	110	511	-401
10	6132	열연강판	108	13	9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237	1,515	-1,279
2	1334	나프타	0	0	0
3	1113	백금	0	555	-556
4	1340	천연가스	0	100	-100
5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3	30	23
6	7414	전기자동차	69	74	-6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16	83	33
8	2250	사진영화용재료	1	81	-80
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00	66	33
10	7419	기타자동차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110	511	-401
2	1334	나프타	0	231	-231
3	1113	백금	0	115	-115
4	1340	천연가스	0	97	-97
5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8	97	-69
6	7414	전기자동차	50	51	-1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04	50	54
8	2250	사진영화용재료	1	48	-47
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31	47	84
10	7419	기타자동차	195	39	15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전기자전거		
HS Code	871160	수입액('21/US\$백만)	25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0.15
선정사유	벨기에 자전거 시장의 규모는 연간 60만대 규모이며 이 중 전기자전거 판매는 40%(2020년 기준) 를 차지하며 꾸준한 수요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시장동향	과거 전기자전거는 50~60대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수요가 많았으나 점차 40~50대들의 통근용 및 자녀 등하교용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났으며 40~60대들의 전기자전거 구매 비율이 전체 구매비율의 75% 이상을 차지. 이에 따라 프리미엄 전기자전거가 강세를 보이며 2021년 벨기에 자전거 구매 평균 금액은 2197유로로 2020년 2031유로에서 8%이상 증가함, 한편 전체 자전거 보급율에서 전기 자전거는 15% 점유율을 보이며 벨기에의 전기 자전거 시장은 아직 성장하는 중으로 평가		
경쟁동향	프랑스 Decathlon과 같이 중국산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대형매장의 저가제품과 벨기에 E-volt, Ahooga, 영국 Brompton 등과 같은 유럽산 고가제품이 강세		
진출방안	저가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품질 국산배터리를 장착하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유럽브랜드(고가지만 품질 우선) 선호 그룹 공략. 따라서 고급 자전거 샵을 중심으로 자전거의 유지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배터리 등의 부품 공급망과 보증 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품목명 2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HS Code	391690	수입액('20/US\$백만)	6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1
선정사유	내마모성, 내열성, 내충격성 등 강도와 열변형성이 뛰어난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산업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소재 등 산업용 및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 소재로도 활용도가 높음		
경쟁동향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진출방안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더욱 개발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을 통한 시장 우위 선점 필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안 모색하여, 친환경 제품에 민감한 벨기에 및 유럽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 3	에너지 저장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		
HS Code	850760	수입액('20/US\$백만)	1,088.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2.9

선정사유	EU가 산업용, 가정용 목적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및 사용에 집중하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를 위한 필수 제품인 ESS 품목이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벨기에는 2017년 최초 산업용 ESS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용, 가정용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인 Engie사가 시장을 선도
경쟁동향	ESS는 핵심부품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기업(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및 일본, 중국 업체가 강세를 보임
진출방안	벨기에 및 유럽 내 EPC역할이 가능한 에이전트 발굴 및 협업을 통해 유럽 진출 전략 수립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모바일게임
선정사유	벨기에는 약 420만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게임산업에 연간 3백만불 이상을 지출함 아울러 세계 게임마켓에서 31위를 차지하여 인구대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시장동향	스마트폰 보유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함 모바일 게이머들 중 29%가 인앱구매 등 게임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16%가 1유로이상, 5%가 20유로이상을 한달에 게임비용으로 지출함
경쟁동향	모바일 게임은 전체시장의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60여개 이상의 현지 게임 개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
진출방안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어와 더불어 현지어 작업을 통해 게임의 현지화가 필요

품목명 2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선정사유	벨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었지만, 오프라인 및 게시판형 C2C 구형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과 UI 및 서비스 데이터 등이 경쟁력이 있을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www.2dehands.be 와 ebay가 있음
경쟁동향	최근 Face book market과 Vinted (리투아니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명품 및 디자이너 의류를 취급하는 https://www.vaniitas.com/ 와 https://thenextcloset.com/ 등이 있음

진출방안	현지 언어와 시장 장벽을 고려해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와 기술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음
------	---

품목명 3	웹툰 콘텐츠
선정사유	전 세계적으로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벨기에도 특히 인근국(프랑스)으로부터 웹툰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4G 이동통신 보급 확산 및 5G 이동통신 도입으로 인해 인터넷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 추세
경쟁동향	한국과 일본 웹툰 등이 유럽 내 진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한국 웹툰이 강세를 보임(프랑스 웹툰서비스 업체 담당자)
진출방안	불어, 네덜란드어, 독어 번역 작업 및 현지 시장이 선호하는 웹툰 콘텐츠 개발 및 타겟팅을 통한 현지화 중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 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 5. 협정의 현대화 협상개시 및 2020. 4. 28. 협상 타결. 현재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할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럼(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 (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촉(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함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1. 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2.2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완료, 직전 협상 :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 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9. 4.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즈스탄	협상 완료, 직전 협상 : 2019.6	EU-키르기즈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 완료, 직전 협상 :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특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이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 확정 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도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제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

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

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 화학 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 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26일부터 적용 되고 있다. 기존 지침(IVD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 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철강협회(EUROFER) 및 EU 12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 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2011%20Jan%202022%20.pdf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 주요 무역항: 벨기에는 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럽 내 다른 산업도시들과도 인접하고 있어 유럽의 관문이라 불린다. 주요 항구로는 앤트워프(Antwerp), 제브뤼헤(Zeebrugge), 오스텐드(Oostende)등이 있다. 한국에서 출발한 벨기에유럽항 화물은 대부분 앤트워프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2022년 4월 22일 Antwerp항구와 Zeebrugge 항구가 합병 절차를 거쳐 합병되어 Port of Antwerp-Bruges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합병을 통해 앤트워프-제브뤼헤 항구는 유럽 1위 수출항구가 되었다. 내륙항인 앤트워프항은 화학제품의 취급 및 저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브뤼헤항과 오스텐트항은 북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제브뤼헤항은 Ro-ro(Roll-on/roll-off) 자동차, 컨테이너, 액화석유가스, 오스텐트항은 건화물(dry bulk)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벨기에 주요공항으로는 수도 브뤼셀 자번트 지역에 있는 브뤼셀(BRU)공항과 브뤼셀 남쪽에 샤를로아공항(CRL)이 있으며, 그 외 프랑스어권 왈로니아 지역에 리에주공항(LGG), 네덜란드어권 플랑드르 지역에는 오스텐드공항(OST), 안트워프공항(ANR)등이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벨기에 주요 공항 여행객 수와 운항 회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감소한 상황이나, 2021년에 들어 항공 화물이 크게 증가했다. 브뤼셀 공항 이용 승객 수는 9,357,221 명으로 코로나 이전 (2019) 보다 64% 감소했으나 전년보다는 38% 회복했다. 항공기 운항 횟수도 118,733편으로 코로나 이전보다는 49%감소했지만 전년보다 23% 회복한 수치이다. 한편 브뤼셀 공항의 2021년 물동량은 843,140 톤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6.4%, 전년보다 30.4% 증가했다.

3) 유의사항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으로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수급불균형으로 해운을 포함한 운송비 급증하면서 유럽 전체 수출입 차질과 비용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안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해상연료 이니셔티브(FuelEU Maritime initiative)'에서는 유럽에 입항하는 선박의 탄소배출량 한도를 설정하여 해운기업들의 지속가능한연료개발과 사용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규선박발주 및 재생연료사용으로 인한 해운 비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간 물류비 증가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4) 기타 참고사항

벨기에에는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보세창고(Bonded warehouse)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위치에 관계없이 세관당국에 등록된 보세창고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EU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개인 및 회사는 EU내 설립되어야 하며, 관세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벨기에 세관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한다. 벨기에에서 통관이 완료된 수입 제품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기타 EU-27 국으로도 추가적 통관절차 없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통관됐다'라는 말은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관세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EU 국에 납부하며 부가세는 각국의 부가세 규율에 따라 수화인의 신고, 납부,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약식통관

벨기에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2)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벨기에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우편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벨기에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일괄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5) 보세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벨기에 이외 EU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벨기에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벨기에 이외 EU 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통관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유로 정도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가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

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벨기에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상업송장 :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위험품목의 경우 MSDS,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 등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 또는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 CN Code(Combined Nomenclatur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 통관비용 : 통관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 5월 기준)

- 보세 보관 서류(IMAJ): 50 유로
- 보세 운송 서류(T1): 50 유로
- 벨기에 바이어 통관 서류: 75 유로

3)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시행(2021.3.15.~2024.3.1.)

역내 수입물품 신고 관리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2, 이하 ICS2)이 2021년 3월 15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ICS2는 역내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 및 위기관리 강화, 국경간 세관 통관 원활화, 경제활동인(Economic operator)과 역내 세관당국간 정보교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시스템 시행에 따라 수출자(또는 포워더)는 화물 선적 전 물품에 대한 데이터(PLACI ; Pre-loading Advances Cargo Information)를 EU 세관당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는 발송인 및 수신인 정보(성명, 주소), 제품 설명, 무게, 운송장 번호 등이다.

ICS2는 제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총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2021년 3월 15일)는 항공 우편물 및 항공 익스프레스(Express)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단계는 일반 항공화물(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예정), 3단계는 항공을 포함한 해상, 육상(철도, 트럭) 등 모든 운송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3월부터 시행예정).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 시 통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_en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DB Schenker NV

주소	Noorderlaan 147,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543 62 11
이메일	sales.be@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s://www.dbschenker.com/be-nl
비고	통관서비스

◦ Burger Logistic Services N.V

주소	Stijfserlui 44 2000 Antwerpen
전화번호	+32-3-202 62 30
이메일	logistics.belgium@buergergroup.com
홈페이지	http://www.royalburgergroup.com
비고	통관서비스

◦ Coli Shipping & Transport

주소	Keizerstraat 20-22 2000 Antwerpen
전화번호	+32-3-213 07 95
이메일	info@coli.be
홈페이지	http://www.coli-shipping.com
비고	통관서비스

◦ Levaco NV

주소	Stanvoortbeeklaan 25, 2100 Antwerpen, Belgium
전화번호	+32-3-202 48 58
이메일	luc@levaco.be
홈페이지	http://www.levaco.be

비고	통관서비스
----	-------

◦ CEVA Freight Belgium N.V.

주소	Noorderlaan 147,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213 62 72
이메일	sam.jaspers@ceva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cevalogistics.com
비고	통관서비스

◦ Geodis Nova Logistics

주소	Romeynsweel3,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540 67 84
이메일	sam.jaspers@ceva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geodis.com
비고	통관서비스

◦ 세중해운 벨기에지사(CXL-Europe)

주소	Maritime House, Noorderlaan 111 2030 Antwerpen, Belgium
전화번호	+32-3-541 6400
이메일	cxl_eu_be@c-express.com
홈페이지	http://www.sejunggroup.com
비고	한국 물류기업(통관서비스)

◦ JAS Forwarding

주소	Noorderlaan 139,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293 26 50
이메일	info@jas.com
홈페이지	https://www.jas.com/belgium.html
비고	통관서비스

◦ DSV Air & Sea NV

주소	Bedrijvenzone Machelen-Cargo 829A, 1831 Machelen
전화번호	+32 2 610 41 00
이메일	info.air@be.dsv.com
홈페이지	https://www.be.dsv.com/
비고	통관서비스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벨기에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 또는 별도 감독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벨기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FSMA(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국내 발생하는 모든 투자 관련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 내 투자 관련 법은 왕령 1995.12.20(Arrêté royal du 20 décembre 1995 relatif aux entreprises d'investissement étrangères) 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외의 주요 투자 관련 법규들은 아래와 같다.

- 투자 서비스 및 자문 활동, 포트폴리오관리, 지위 관련 법 (à l'accès à l'activité de prestation de services d'investissement et au statut et au contrôle des sociétés de gestion de portefeuille et de conseil en investissement) : Loi du 25 octobre 2016
-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억제 관련 법(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utilisation du système financier aux fins du blanchiment de capitaux et du financement du terrorisme) : Loi du 11 janvier 1993
- 금융 분야 및 금융 서비스 감독 관련 법(relative à la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et aux services) : Loi du 2 août 2002
- 기업 및 단체 코드(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Loi du 23 mars 2019(기존 법 Loi du 7 mai 1999를 대체)

벨기에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국가 체제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분권화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전됐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 및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벨기에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북부의 플란더스 지방, 중부의 브뤼셀 지방,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 등 3개의 지방정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해 담당 지방정부 당국과 협상 후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EU 시민이 아닌 역외국 국민이 벨기에 내에서 회사(지사 및 연락사무소 포함)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카드(Professional card)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 카드 신청은 벨기에 도착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 중인 국가의 벨기에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에 이미 거주 중이면 벨기에 인증기업 창구(Guichet d'entreprise agréé)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벨기에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진출분야에 대한 자격요건(학위 등)을 충족해야 하고 진출계획이 벨기에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 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신청서 2부
- 범죄 경력 조회서 (신원 조회 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진 2부
- 창업 목적 및 사업계획서 1부 (최대 20페이지)
- 그 외 사업 계획 검토에 유용한 기타 문서 첨부 가능

사업자 카드 발급 관할은 2015년부터 3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발급 신청은 해당 대사관 영사과 또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를 통해 가능하다(예: A 기업이 브뤼셀 지방에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 대사관 또는 기업창구는 연방정부가 아닌 브뤼셀 지방 당국으로 접촉하는 형태). 기업창구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당국(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에 신청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신청을 받은 각 지방당국은 기업의 진출 세부계획, 신청자의 기술 전문

성, 금전성, 회사 운영형태 등 벨기에 진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시행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발급기간은 파악하기 힘들다. 대부분이 3~4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며, 2022년 5월 기준 해외에서의 카드 발급 비용은 약 140 유로이다. 사업자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90 유로이다.

- 관련 링크: <https://economy-employment.brussels/professional-card>

지방별 관련 지방당국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브뤼셀 지방

- 기관명: Bruxelles Economie et Emploi Direction de la Migration économique
- Tel: +32 (0)2 20413 99
- Fax: +32(0)2 204 15 28
- 주소: B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xelles

○ 왈로니아 지방

- 기관명: 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
- Tel: +32 (0)81 33439
- Fax: +32 (0)81 334322
- Email: professionalcard@spw.wallonie.be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Jambes

○ 플란더스 지방

- 기관명: Departement Werk en Sociale Economie
- Tel: +32 (0)2 553 08 80
- Fax: +32 (0)2 553 44 22
- 주소: KoningAlbert II- laan 35 bus 20, 1030 Brussels
- Email: beroepskaart@vlaanderen.be

투자인센티브

1) 고용 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 부담금이 무기한 면제되고 있으며 두 번째 고용 근로자의 경우 처음 5분기 동안에는 1,550유로, 그 뒤 4분기 동안에는 1,050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는데, 이들 근로자에 대해 처음 9분기에는 1,050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다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 규정예의 적응을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3) 혁신 박스제도(Innovation Box)

벨기에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유치를 위해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17년 2월 2일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벨기에 혁신 박스 제도는 기존의 특허수익공제법(La déduction pour revenus de brevets)을 대체하는 제도로, 기존 적용 중인 R&D 지원제도를 포함한다. 혁신박스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 대상 수입 중 혁신(Innovation) 활동에 대한 수익 중 최대 85%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허권과 보충적 보호 인정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이하 SPC)
- R&D 활동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 회귀약 지정(Médicaments orphelins)
- 육종자 권리(droits d'obtention végétale)
- 의약품 관련 데이터독점권(exclusivité des données) 및 시장독점권(exclusivité commerciale)

4) 명목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자기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명목이자율 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투자유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목 이자율이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순 자산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명목이자 면제의 기준은 외국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외투기업)에 차관형식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세제는 외국인 유치 세제조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로, 벨기에 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감축되는 동시에 세금 지불 후 투자 수익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자본집약 투자를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재무관리와 구매 또는 대금결제 업무를 전담하는 자사를 세우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2022년 적용되는 공제율은 -0.016% (총 고용인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0.34%)이며, 제도 담당 기관은 아래와 같다.

- 담당기관: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Cellul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Etrangers
- 전화번호: +32.2579.3866
- 이메일: taxinvest@minfin.fed.be
- 주소: Parliament Corner, Rue de la Loi 24 - B-1000 Brussels
- 홈페이지: <https://finance.belgium.be/en/enterprises/corporation-tax/tax-benefits/notional-interest-deduction>

5) Tax shelter

벨기에 Tax Shelter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부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투자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정부는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벨기에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벨기에 영화 및 영상산업의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천 명 이상이 투자했으며, 총 620개의 영화가 이 제도를 통해 제작되었다. 특히 벨기에 기업 이외의 해외 제작사들 역시 현지 중개제작사를 통해 Tax shelter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할리우드 등 대형 상업영화 제작사들도 이 제도를 이용한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TV용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에피소드형식을 취한 시리즈물, 만 0~16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용 드라마 혹은 시리즈물 등이 해당된다. 벨기에 기업 및 벨기에에 진출해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송제작사, Tax Shelter 투자 중개업체, 투자대상이 되는 제작사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투자방식으로는 직접투자 방식을 취

하며, 벨기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중개업체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투자액의 421%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세 받아 실질 과세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시) 과세금액이 1,200,000유로인 기업의 법인세는 300,000유로이나(법인세율 25% 적용), 만일 동일 기업이 Tax shelter에 100,000 유로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421%를 감세 받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779,000유로로 낮아지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94,750유로가 됨

단, 투자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최대 감면액은 200만 유로로 제한된다. 해외 영상제작사 역시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나 작품 대상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에 한하며, 반드시 벨기에 영상 산업 프로덕션과 합작을 통해 제작되어야만 가능하다.

벨기에 Tax shelter 제도에 관련된 공식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기관명: Tax Shelter.be
- 주소: 175 rue de Geneve, 1140 Evere(Brussels)
- 전화번호:+32.770.21.33
- 홈페이지:www.taxshelter.be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벨기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 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단속이 강화됐다.

2) 투자 금지

벨기에에서는 따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독성물질, 의약품, 다이아몬드 가공, 연마(Polishing), 가스·전기 공급, 임대(Leasing), 공공운송, 안보, 몇몇 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에는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카지노 등에 대한 사업 역시 당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에는 금융재정서비스 당국(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승인은 EU 기업과 역외 기업에 대해 승인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외국기업이 EEA에 속하는 기업이거나 WTO 협정에 속하는 국가의 기업일 경우 EU 내 기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벨기에는 국가 차원의 특별경제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정책은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브뤼셀 지방의 경우, 여타 지역 대비 경제 수준이 다소 낮은 지역인 Anderlecht, Bruxelles, Forest, Molenbeek-St-Jean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기업 진출방식,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담당 기관으로 연락하는 것을 권한다.

- 브뤼셀 지방 경제 및 고용부(기업지원부)
- Bruxelles Economie et Emploi(Direction Aides aux entreprises)
- 주소: Bd du Jardin Botanique, 20, 1035 Brussels
- Tel: +32 (0)2 800 34 29
- Fax: +32 (0)2 800 34 28
- 홈페이지: <https://economie-emploi.brussels/soutiens-financiers>

한편, 북부 플란더스 지방 또는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은 브뤼셀 지방처럼 별도의 경제구역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단지

○ Aeropole(Zoning Industriel)

규모	120 Ha
위치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71-20 28 11 ○ 이메일: igretec@igretec.com ○ 홈페이지: www.igretec.com

○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규모	290 Ha
위치	Rue de nimy 53, 7000 Mons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71-20 28 11 ○ 이메일: info@idea.be ○ 홈페이지: www.idea.be

◦ Haut-Sarts SPI Business Park

규모	435 Ha
위치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4-230 11 11 - 이메일: info@spi.be - 홈페이지: http://www.spi.be

◦ Haasrode Research-Park

규모	11,800,000m ²
위치	Interleuvenlaan, 3001 Leuven
임차료	100~130 유로/m ² /연간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 16 29 97 97(담당자 Mr. Benjamin) - 이메일: leuven@aximas.com - 홈페이지: https://www.aximas.com/nl/haasrode-research-park.html

◦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규모	52 Ha
위치	Technologiepark-Zwijnaarde 3, 9052 Gent-Zwijnaard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https://www.ugent.be - 전화: +32(0)9/264.78.83 - 이메일: techtransfer@ugent.be
비고	1986년 설립 - 겐트대학, 플래미쉬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겐트소재) - 주요 연구 분야: 생명공학, ICT 10개 대학 연구소, 8개 연구소, 11개 글로벌 R&D 센터, 60개 하이테크 기업들과 연계

◦ GreenBridge Science Park

규모	18 Ha
위치	Wetenschapspark 1, 8400 Oostend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 (0)59 24 27 30 - 이메일: info@greenbridge.be - 홈페이지: http://www.greenbridge.be
비고	- Ostend 소재 과학 연구 단지로 겐트 대학, Pom West-Vlaanderen, Ostend항과 협력하여 운영 - 주요 연구 분야: 에너지 효율, 환경 친화적 에너지

◦ Louvain-la-Neuve Science Park

규모	231 Ha
위치	Place Louis Pasteur 3, B-1348 Louvain-la-Neuv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10-47-80-69 - 이메일: info-parc@uclouvain.be - 웹사이트: www.llnsciencepark.be
비고	1971년 설립 - 입주 현황: 276개사, 1 대학 - 주요 부문: 생명공학, 화학, ICT, 엔지니어링

◦ Liege Science Park

규모	50 Ha
위치	Rue de Vertbois 11, B-4000 Lieg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32-4-230-11-11 - 이메일: info@spi.be - 웹사이트: www.liegesciencepark.be
비고	- 입주 현황: 72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 - 주요 부문: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자료원 : 각 단지별 홈페이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주요 지역별 여건

◦ 플란더스 지방

연방국가인 벨기에는 플란더스 지방(북부), 브뤼셀 지방(중부), 왈로니아 지방(남부) 등 3개의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마다 고유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즉, 각 지방정부는 투자 및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무적, 기술 및 실무적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무료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플란더스 지방은 유럽 내에서 투자 매력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유럽 주요 항구인 안트워프 항을 비롯해 신차 운송이 활발한 제브리헤 항구, 바이오 연료 운송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겐트 항구 등 훌륭한 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안트워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운,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700여 개의 유럽 물류센터(European Distribution Centers)가 동 지방에 구축되어 있다.

이외,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4차 산업 육성계획 Vision 2050을 발표하고 IoT, 3D 프린팅, AI, 로봇, 나노테크놀로지 분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플란더스 지방은 공업이 일찍이 발달한 까닭에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한 상태라 대지가 부족해 신규 산업단지의 설립이 타지방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플란더스 지방 내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FIT(flanders investment and trade)
 - Tel: 0032 2504 87 11
 - 메일: invest@fitagency.be

- 주소: Koning Albert II-laan 37, 1030 Brussels
- 홈페이지: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invest/en](http://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invest/en)

◦ 왈로니아 지방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초기 광산업을 중추로 삼고 지방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19세기 후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타지방 대비 경제적으로 다소 뒤쳐지게 되었다. 이후,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지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Digital Wallonia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및 전 산업 밸류체인 내 디지털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왈로니아는 플란더스 지방 대비 활용 가능한 부지가 충분하며, 해당 지방의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AWEX(L'Agence wallonne à l'Exportation et aux Investissements étrangers)
 - Tel: 0032 81 33 28 50
 - 메일: welcome@investinwallonia.be -
 - 주소: Avenue des Dessus de lives, 6 B-5101 Namur-Loyers
 - 홈페이지: <http://www.investinwallonia.be>

◦ 브뤼셀 지방

브뤼셀 지방의 경우, EU 본부와 NATO 등 유럽의 행정중심도시로 제조업 분야 기업보다는 대부분 로비,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브뤼셀 지방정부는 최근 브뤼셀을 유럽의 디지털 허브로 삼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bedigital.brussels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IoT, VR, AI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브뤼셀 지방의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Hub.brussels(종전의 Bruxelles Invest &Export 기관명이 변경됨)
 - Tel: +32 24 22 0020
 - 주소: Chaussée de Charleroi 112, 1060 Brussels
 - 홈페이지: <https://hub.brussels/fr/bruxelles-invest-export>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708.31	30820.6	2886.01	8437.41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29698	39498.2	1580.7	10227.2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8	4	81,723	17	81,481
2020	3	0	631,942	3	632,117
2021	2	2	11	2	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1	245	1	57
도매 및 소매업	1	0	54	1	55
부동산업	2	2	75,209	3	75,2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4,950	1	4,8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0	1,265	11	1,26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979	1	979

정보통신업	1	0	19,528	1	19,703
부동산업	1	0	611,435	1	611,43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10	1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	1	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현대건설기계 유럽법인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 장비
모기업명	현대건설기계

○ 현대모비스 유럽 (벨기에)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부품
모기업명	현대모비스(주)

○ 현대자동차 브뤼셀사무소

진출연도	2009
------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기아자동차 벨기에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유럽법인

◦ 길리안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초콜릿
모기업명	롯데제과(주)

◦ 두산 산업차량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판매
업종	건설중장비
취급분야	지게차
모기업명	두산그룹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6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전자
취급분야	도매 및 소매업/ 對 EU 협력 및 대응, 연구
모기업명	삼성전자

○ 아시아나항공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항공
취급분야	항공운송, 화물
모기업명	아시아나

○ 대모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계
취급분야	건설장비류, 유압기계
모기업명	대모엔지니어링(주)

○ 포스코 브뤼셀 사무소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철강
취급분야	철강재
모기업명	포스코

○ 세중해운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지점
업종	물류

취급분야	창고운영 및 물류 서비스
모기업명	세중해운

◦ ELSC 벨지움(ELSC Belgium)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물류
취급분야	해송운송전문
모기업명	ELSC벨지움

◦ 파맥스 글로벌(Farmax Global)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기타
업종	무역 및 물류
취급분야	수출입 무역, 골프용품, 화물운송
모기업명	파맥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지식서비스업
취급분야	한-EU 산업기술협력(R&D) 지원
모기업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한-EU 연구센터(KERC)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지식서비스업
취급분야	한-EU 과학기술협력(R&D) 지원
모기업명	한-EU 연구센터(KERC)

○ 한국무역협회(KITA)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지식서비스업
취급분야	KBA(한국기업연합회) Europe 운영, 통상정보 제공
모기업명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벨기에는 기존 총 17개 형태의 회사가 존재했으나, 2019년 5월 부로 국내 기업코드가 개정되면서, 현재 총 5개의 법적 회사 형태가 있다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프랑스어로 SA / 네어로는 NV) : 주식 회사는 자본 조달이 가장 중요한 특정 규모의 회사를 위한 회사 형태. 창립을 위해 한 명의 설립자로 충분

-유한책임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RL/BV) :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기본 적인 회사 형태. 창립을 위해 한 명의 설립자로 충분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VOF) : 합명회사는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파트너 사이에 체결된 회사로 합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함

-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SCS/GCV) : 합자회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와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 간에 체결되는 회사 형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합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함

-협동회사(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SC/CV) : 협동조합은 주주가 협동조합의 이상을 추구하는 회사로 항상 세 명의 창업자가 필요. 주요 목적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주주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될 수 있음

벨기에에 투자 진출한 기업의 대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로 진출한다. 금융 문제에서 현지 법인의 경우 벨기에 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에 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현지 법인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별도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사

지사는 외국인 법인체로서 지사가 속한 본사 소재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사도 벨기에 회계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현지 법인 자회사처럼 지사 자체의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할 의무가 없는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가 벨기에 공식 언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발표돼야 하며, 1부는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연차 회계 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따라 감사, 공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단점은 본사의 회계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산업 동향 등 각종 시장 조사 및 기업들과의 접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설치절차는 없고 관련 구비서류를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 제출하고 기업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벨기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식 기업창구는 총 8개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Acerta(www.acerta.be, 전화번호 : +32.2333.2720)
- Xerius(www.xerius.be, 전화번호 : +32.7848.4777)
- Eunomia(www.eunomia.be, 전화번호 : +32.9371.4957)
- Formalis(www.formalis.be, 전화번호 : +32.2545.5800)
- Securex(www.securex.be, 전화번호 : +32.7805.9010)
- Partena(www.partena-professional.be, 전화번호 : +32.2549.7470)

- Liantis(www.liantis.be, 전화번호 : +32.2212.2230)

- UCM(www.ucm.be, 전화번호 : +32.7815.6200)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벨기에에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다수 국제 단체와 기관이 위치해 있어 주요 유럽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벨기에 정부주도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 세계적인 연구개발역량,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는 3개의 언어 공동체 및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지방마다 주요 산업부문에 지역별노동력, 기술격차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다국적 컨설팅 기관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벨기에는 조사대상인 세계 상위 25개국 중 전년과 똑같이 17위를 차지했지만, 점수는 다소 올라 2022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및 투자에 대한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벨기에정부는 현지기업과 해외기업 투자에 차별화를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투자 형태를 지원하는 개방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등록절차 및 행정절차 등이 다소 관료적이며, 3개의 공용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지역 언어를 구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2015년 연방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 팀(TF)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소득세 수준이 높음에 따라 투자 시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조세, 고용관련사항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투자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의 투자진흥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EU공정시장규정을 적용 받으며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투자스크리닝규제(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gulation)을 강화함에 따라, 벨기에 연방정부에서도 국가안보기반 투자심사법안(Investment Screening Law)을 마련 중이다. AI, 로봇, 첨단기술 인프라, 금융 등 EU 안보관련 전략기술, 자산유출이 우려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역외국 기업의 對EU 전략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 및 회원국간 공조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할 전망이다. 3) 분쟁해결 벨기에 내에는 대 벨기에 투자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창구나 중재기관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벨기에 지방법원은 정부에 대한 외국중재판단(foreign arbitral awards)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외 법원의 판결 역시 현지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 가능하다. 벨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체약국으로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ICSID중재조항을 포함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더불어 벨기에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는 SA 또는 NV로 표기되며(프랑스어 société anonyme/네덜란드어 naamloze vennootschap의 약칭),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은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의무로 두고 진행돼왔으나, 기업설립의 유연성을 위해 기존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방식 이외에도 두가지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주식회사 설립 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영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1) 일반- 전통적 경영방식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가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담
- 2) 위임- 행정관(seul administrateur)을 별도로 임명하고 경영권을 위임
- 3) 이원적 경영(dualiste)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두는 경영방식으로 이사회는 기업 업무집행을 총괄하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전략 담당 및 이사회 멤버를 지정하는 권한 보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61,500유로와 공증인을 통한 회사정관, 향후 2년간의 재무계획서가 필요하다.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 주식 발행 종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기업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회사와 비교했을 때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복잡한 제약이 뒤따르는 단점을 지닌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벨기에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이며 SRL(불어)/BV(네어)로 표기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손실 발생 시 출자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안전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벨기에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동 기업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장려키 위해 2019년 5월 기존 기업코드 법을 개정해 설립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설립을 위한 법정 자본금 유치의 삭제로 기존에는 최소 18,55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 1유로만으로도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설립자는 향후 2년간의 기업 재정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정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설립자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이 전문 회계사를 통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계보고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 경영방식 관련 3가지 대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 의무를 지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 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IPV Law

전화번호	+32-(0)4-85-68-36-38
주소	Rue Gustave Fuss 15, 1030 Brussels, Belgium
홈페이지	http://www.ipvlaw.be
이메일	avocat.pango@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담당자: Irida Pango-Vermeersch

◦ Cairn Legal

전화번호	+32-(0)2-787-70-70
------	--------------------

주소	Chaussée de la Hulpe 177/12 1170 Brussels, Belgium
홈페이지	http://www.cairnlegal.be
이메일	bv@cairnlegal.b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담당자: Mr. Vandenkerckhove Bernard

◦ Laga

전화번호	+32-(0)2-800-70-00
주소	Berkenlaan 8a 1831 Diegem, Belgium
홈페이지	http://www.laga.be
이메일	info@laga.b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김은정 변호사(프리랜서)

전화번호	+32-(0)15-730-777
주소	Mechelsesteenweg 175 2220 Heist op den Berg, Belgium
홈페이지	http://www.hanbit.be
이메일	info@hanbit.be
비고	공인 법률 통번역사(네덜란드어-한국어)를 겸임중인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벨기에는 외환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으며,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 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과거 벨기에의 공식 외환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시장(The free market)의 이중 구조는 1990년 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됐으며 IMF 제 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외환 규제

◦ 해외송금

벨기에를 포함한 유로존 국가 외환관리의 기본 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역내 별다른 외환규제가 없어 자유로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벨기에에서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며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시스템을 사용 중인 유럽지역 국가간 송금인 경우 무료이나, 한국 등 역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SEPA 해당국: EU-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산마리노, 영국, 모나코). 일례로 2022년 5월 기준 KBC 은행의 국제 전송 수수료의 경우 (송수신 모두) 기본 요율 0.121%(최소 9.68유로, 최대 145.2유로)이며, 25유로 미만의 전송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창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비용(30.25유로)이 추가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95 유로

대출-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5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1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
비고	○ 최저임금 : 1,733 달러(세전 기준) ○ 대출 사무직 평균 임금 : 4,036달러, 석사 이상 사무직 평균 임금 : 5,813 달러(세전 기준)				

<자료원 : Statista, 현지언론 참조>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는 4가지 필수요소가 있는데, 계약, 근로, 보수, 고용주 감독으로 이들 4대 요소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고용계약은 양측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돼야 하며 계약변경은 양측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계약 종료에도 동일하게 적용).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의 핵심 요소를 변경할 경우, 계약종료로 간주한다. 만약 계약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계약 내 핵심적 요소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

벨기에는 고용계약의 문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후 증빙 등의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권리 및 의무는 양측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협약, 근로 규정, 관습 등으로도 규율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에는 업무 내용, 고용계약 기간, 보수 및 보수지급 날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종료, 결근, 분쟁절차, 근로 규칙, 보험, 식권(Ticket restaurant), 기타 인센티브 등이 문서로 기술되고 있으며 양측간 서명으로 계약에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 기간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CDI(contrat a duree indeterminee 고용계약기간 없음)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CDD(contrat a duree determinee: 고용계약기간 있음) 등 2가지의 계약형태로 분류된다. CDI의 경우 정규직으로 특정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한 계약이다. 벨기에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인 CDD의 경우,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연장된 계약기간 총합은 최대 2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총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벨기에 사회법 규제기관(Controle des lois sociales)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 계약직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계약서 내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피고용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정규직(CDI)에 대한 파기는 중대한 과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계약직(CDD)은 파기할 수 있다. 파기 기한은 총 계약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10개월의 CDD인 경우, 5개월 근무 시점에 해당) 이전에만 가능하며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만약 계약 파기 가능 시점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2) 수습기간(Periode d'essai)

벨기에는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1개월~12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로 이 수습기간은 폐지됐다. 다만 일용직, 학생 아르바이트 등에는 예외를 두고 3일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습기간 제도 폐지에 따라, 만약 기업에서 노동 계약서 내 수습기간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만들 때에는 무효 처리되며,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38시간이며 최대 법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시간은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칭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들을 이동하는 시간 및 점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및 식사시간은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탄력 근로시간은 근무주간 5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노사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총 급여가 유지되도록 시간당 급여를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다.

만일 최대 법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간 12일의 보상 휴가를 받게 된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급여 및 휴식이 보장되는데, 월~토요일까지는 평소 급여액의 50%가,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소 급여의 100%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숙박 및 의료, 전자상거래 분야 등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벨기에 야간근무는 1971.3.16 노동법 제 35조(art 35 de la loi du 16 mars 1971 sur le travail)에 의거, 20시~6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휴가

벨기에의 법정휴가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민간분야의 경우 연간 20일이다.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44세까지는 26일, 45~49세까지는 27일, 50~54세까지는 28일, 55~59세까지는 29일, 60~61세까지 30일, 62세는 31일, 63세는 32일, 64~65세까지는 33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첫해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무한 다음 연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출산휴가, 기타 가사와 관련된 사망, 결혼, 출생 시 특별휴가가 인정된다.

1) 출산휴가

벨기에는 출산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출산 전 휴가(conge prenatal)와 출산 후 휴가(conge postnatal)로 나뉜다. 전체 출산휴가 기간은 총 15주로 출산 전에는 통상 6주, 출산 후에는 9주의 휴가기간이 주어진다. 출산 후의 9주 휴가는 별도의 자율적 선택권이 없으나 출산 전 6주 휴가의 경우, 산모의 자율적 선택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출산 전 휴가 사용을 줄이고 출산 기간만큼 출산 후 휴가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출산 전 1주일의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3월 7일인 경우, 산모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출산 전 휴가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나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1월 24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출산휴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서는 임신에 대한 고용 보장이 매우 높아 고용주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는 출산 휴가 동안 출산수당을 받게 되며, 출산휴가 후의 복직을 보장받는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하루에 2번 수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처음 30일까지는 원래 급여의 82%를 받고 31일째부터는 원 급여의 75%를 받게 된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산모는 주당 782.77 유로(5주 이후부터 715.95유로, 세전, 2022년 기준)를 급여로 받게 된다..

2) 배우자 출산휴가(Conge de paternite)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한 부모의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근로자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육아를 장려 위해 생겨났다. 최대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로 15일로 늘어났으며 2023년부터는 최대 20일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휴가는 15일 전체를 한번에 사용하거나 또는 반일로 나누어 3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 중의 급여는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일일 91.03 유로(2022년 기준)를 지원 받는다.

3) 입양 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부모가 각각 2022년 기준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입양휴가는 자녀로 등록이 된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입양휴가의 기본 기간은 최대 6주였으나, 2019년 1월 1일 부터 2년에 1주씩 증가해 2027년 까지 총 11주의 입양휴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입양 휴가의 첫 3일 동안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며, 그 이후 기간은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원래 급여의 82%를 받는다.

4)육아휴직(Conge parental)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아픈 자녀가 있는 경우 21세까지 가능). 총 휴직 시간은 4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을 월/일/반차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방법에 따라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의 지원금이 다르다.

- 4개월을 완전 휴직 : 1달에 812.22 유로 지급
 - 8개월동안 1/2근로(오전/오후 근무) : 1달에 374.39 유로 지급
 - 20개월 동안 4/5근로(주 4일 근무): 1달에 127유로 지급
- (이 외 80개월동안 주1회 반차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은 부, 모 모두 동일하게 각 1회 사용 가능하나 부, 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아픈 가족을 위한 근로 유연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을 돌봐야 할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서 완전 또는 부분 휴직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 및 말기인 경우에도 1개월~2개월의 일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6) 병가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30일까지 급여의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30일까지 100%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7) 특별 휴가(Petit chomage)

출산, 병가 이외에도 경조사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휴가가 주어진다.

- 근로자 당사자 결혼: 2일(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결혼의 경우에는 1일)
- 사망: 부모, 자녀의 경우 3일(형제, 자매,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2일)
- 안수식(Ordination): 1일(형제, 자매 등)

해고

벨기에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오, 과실을 범하거나 기업 조정 등 경제적인 사유일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서면을 통해 해고사유를 밝혀야 하며 법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벨기에 해고 통지 기간은 입사일(기준: 2014.1.1) 및 연봉에 따라 나뉘고 있으며, ① 입사일 및 ② 해고 통보일까지의 근속 기간 등 ①+②번 총합으로 계산된다. 2014.1.1을 기준으로 두 가지 계산법으로 나뉜 이유는 이전까지는 벨기에에는 근로자가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에 따라 해고절차 및 통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됐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직/사무직에 대한 차별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존 차별규정을 폐지한 후 2014.1.1부터 생산직/사무직과 관계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 벨기에 해고 통지 기간 계산법(①+②번 총합)

① 기준 : 입사일(2014년 1월 1일) 및 (연봉) 32,254유로(Gross)

- 만일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전에 입사했고, 연봉이 32,254유로 이하인 경우: 근속연수 5년당 3개월(즉,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6개월이 됨)

-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전에 입사했으나 연봉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당 1개월

② 2014.1.1부터 해고 통보일까지 근속 기간이 기준(이전까지의 근속기간은 이미 ① 항목에서 계산했으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일수는 0으로 간주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만 계산)

- 0~3개월 미만 : 2주
- 3~6개월 미만 : 4주
- 6~9개월 미만 : 6주
- 9~12개월 미만 : 7주
- 12~15개월 미만 : 8주
- 15~18개월 미만 : 9주
- 18~21개월 미만 : 10주
- 21~24개월 미만 : 11주
- 2(24개월)~3년 미만 : 12주
- 3~4년 미만 : 13주

○ 예시: 근로자의 연봉이 32,254 유로 이하이고, 2010년 7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의 해고 통지기간 총합은 3개월+12주로 계산된다.

- 근속연수 5년 이하이기 때문에 3개월이고, 12주(2~3년에 속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개월이 4~5주로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벨기에 고용부에서는 전체 주, 또는 전체 월 수로 합해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개월+주당으로 계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벨기에 고용부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벨기에 고용부: <http://www.werk.belgie.be/defaultTab.aspx?id=42152>

○ 대량 해고 : 기업 폐쇄 등으로 인한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의사결정 전에 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알리고, 협의 절차 이후 위 사항을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종의 냉각기로서 30일 동안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해고 시기, 퇴직 급여, 조기연금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플랜들이 미리 마련돼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냉각기 동안 고

용주의 통보 및 협의 절차 미이행 시 근로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추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고용주는 60일까지의 평상 임금 지급, 통보 및 협의 절차의 완성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데, 정보 제공 및 협의 절차 후에 사회적 플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게 된다. 이 협상 동안 노사위원회 내부분위기는 냉각기 동안의 사회적 플랜 협상에 영향을 주며, 이 단계에서 노조와 근로자는 모든 형태의 노동쟁의 행위를 한다.

퇴직금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없으며, 근속년수 45년을 다 채운 퇴직의 경우 연금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한국과 벨기에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2011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로써 현지 사회보장처(ONSS ; National Social Security Office)에 등록된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나중에 한국에서 한국 연금을 받을 때 벨기에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연금 계산 때 한국 직무 연한에 추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일정 기간 직업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 직장을 가지고 일한 후 연금 연령에 달해 한국에서 한국 연금을 받을 때 벨기에에서 근무한 연한이 마치 한국에서 근무한 것처럼 한국 연금 연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벨기에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연금 수혜자는 한국 연금 당국에 벨기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을 통보하면, 연금 당국이 벨기에 연금 당국에 심사를 요청하고 확인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파견된 현지 한국 기업 주재원의 경우에는 현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 현지 한국 기업(한국법인이든 현지 법인이든 상관없이)이 한국 국적 또는 현지 국적의 현지 거주 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에 대한 현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은 1886년 대규모의 파업이 발발한 이후 국가가 공제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계기로 벨기에에는 근로자와 실업자 간, 직업인과 연금자 간, 건강한 자와 환자 간, 소득자와 비 소득자 간, 양육자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연대적 상부상조 개념을 기초로 점차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왔으며, 그 결과 빈부의 차가 심하지 않고 중산층이 사회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에는 전통적으로 연금제도,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험, 연가휴가비가 포함되며, 그 외 극빈자와 고령자 최저소득 보장, 장애자 수당, 양육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기여도는 근로소득 중 고용주 3.8%, 근로자 3.55%로 분담된다.

고용보험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재원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gross salary) 대비 각기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즉, 근로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실업수당 등 국가 사회보장으로 커버되는 보험을 각기 지불하지 않고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 돼 사회보장관리기관으로 지불되면, 사회보장기관에서 각 해당 기관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지급은 연방정부가, 복지서비스는 각 지방정부가 관리한다.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은 강제성을 띠는데, 고용주는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봉급자 및 고용주 분담총액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담비율은 고용주의 경우, 기본 사회보장 분담률 22.65% + 회사특성(규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더해진 대략 33%가량을 분담하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13.07%를 분담하고 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기본적인 산재보험 기여금은 근로소득의 0.3%이다.

국민연금

벨기에 연금은 근무기간 중 납부했던 소득별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이 합쳐져서 마련되며 법적 연금(pensions legales), 추가연금(pensions complementaires), 개인연금(epargne-pension individuelle)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 연금은 법정 소득보장체제로 고령자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45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4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비율만큼 감액된다. 추가연금은 법적 연금에서 추가비용을 들여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민간 부분에서 근로자의 75%, 자영업자의 45%가 적용되며, 기업에 따라 추가연금 도입 선택이 가능하다. 이 외 개인이 연금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벨기에 근로 연령층의 약 38%가 가입해있다. 현재 적용되는 연금 수급연령은 65세이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높은 연금 운영비용으로 2025년부터는 66세, 2030년부터는 67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벨기에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되므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내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EU 및 비 EU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3.9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왔던 벨기에 세율은 2020년부터 8.99% 감소한 25%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벨기에 법인세율이 EU 평균(22.09%) 대비 11.9%나 높고 주변국인 네덜란드(25%), 영국(20%), 스페인(25%), 독일(29.72%), 스위스(18%)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벨기에 정부는 외투 유치 및 기업경쟁력 증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2019년(29.58%) → 2021년(25%) 등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단 수익액 1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의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외 기존 부과되던 부가세 2% 역시 2021년 폐지되었다.

법인세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이 지불 되기도 한다. 만약 일부 이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최대 200%가 인상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벨기에는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세전 13,540 유로까지는 25%가 과세되며 이후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되는 소득액별 과세비율은 아래와 같다.

- 연간소득액(세전 기준)별 과세율 (2022년 5월 기준)
 - 13,540 유로 이하 : 25%
 - 13,540~23,900 유로 : 40%
 - 23,900~41,360 유로 : 45%
 - 41,360 유로 이상 : 50%

기본소득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예) 거주자의 과세 소득이 26,000 유로일 경우,
13,530 유로의 25% = 3,385 유로
(23,900 - 13,540) 유로의 40% = 4,144 유로
(26,000 - 23,900) 유로의 45% = 945 유로
기본세 = 3,385 + 4,144 + 945 = 8,474 유로

* 특정 유형의 소득(예: 해외 소득, 연금 및 대체 소득 등)이나 특정 지출(예: 보육, 연금 저축 등)이 있을 경우 세금액 감소

한편,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득이 없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해당된다. 매년 소득 신고 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고자는 동봉된 봉투에 답변 서류를 넣어 송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Tax-on Web을 사용하거나, 거주지역에 위치한 세금 신고 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고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생돼 최종단계까지(소비 용품일 경우 소비자가 최종 VAT를 지불함)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각 단계의 거래자는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즉 스스로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종 VAT는 소비자가 지불하므로 기업이 각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부를 받는다. 역외산 상품 수입 시에도 수입상은 수입 상품가격에 대해 VAT를 지불해야 하나, 이는 나중에 환부 받는다.

o 벨기에 부가가치세율

- 표준세율: 21%
- 중간세율: 12%
- 감소세율: 6%
- 일부 예외적인 상품 및 서비스: 0%

벨기에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VAT 지침을 따라, 자체 표준 VAT 세율을 1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2022년 벨기에 VAT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보다 1% 높다. 그러나 VAT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VAT 수입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벨기에는 세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수입의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벨기에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많은 품목에 예외적 부가가치세율(6%, 12%)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간지 혹은 주간지, 재활용된 상품에는 아예 VAT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일용품 예를 들어 음식, 물, 약품에는 6%가 부과된다. 한편,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과 레스토랑 서비스, 특정 농산물 및 새 건물에 필요한 자재, 석탄과 같은 일부 에너지 자원, 비료, 살충제 및 농업용 자재 등에는 12%가 부과된다. 자세한 품목별 세율 목록은 EU 조세 데이터베이스(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taxDetails.html?id=48/15935544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벨기에는 VAT 한도가 있어 수입이 15,000 유로 미만인 경우 VAT 면제 및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는 *petite entreprise/ kleine onderneming status*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 25,000 유로까지 예외적 VAT 한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담배, 주류, 휘발유, 석유, 등유, 미네랄 워터, 맥주 등에 특별세로 물품세(*accise / accijnzen*)가 부과되며, 재사용 포장재를 제외한 재생 포장재와 가전제품에 환경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 환경세의 경우, 폐기처분 비용 충당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며 소비자 구매가격에 별도로 추가되고 세액은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품목별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의 벨기에 세관당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finance.belgium.be/en/customs_excises/enterprises/excise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무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EU는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에서 회원국 간의 지재권 정책의 통일화와 지재권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정책 통일화는 회원국 간의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재권 보호정책은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되며, 저작권 위반 및 위조품들이 미치는 EU 내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유럽기구(유럽특허청, 지재권청) 등이다. 집행위는 특허권, 상표권 등에 있어 주도적으로 EU 차원의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연방 정부 경제부 내 지식재산권 관리부(OPRI: Office Belg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에서 EU가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국내 지재권 보호 관련된 법규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 벨기에 지식재산권 관리부 홈페이지 : <https://economie.fgov.be/fr/themes/propriete-intellectuelle/office-belge-de-la-propriete>

○ 특허권

벨기에에서 특허를 보호받는 방법은 벨기에 지식재산권 관리부(OPRI)에서 등록하거나 유럽특허청(EPO) 내 EU 공동 특허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유럽 특허청을 이용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특허권을 획득 하거나 수정이 되었다면, 각 회원국 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1회 출원만으로 특허권 보호가 가능하다. 즉,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 내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 유럽특허청 홈페이지 : <https://www.epo.org/>

○ 상표권

벨기에 내 상표권은 베네룩스 상표 사무소(The Benelux Trademarks Office)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베네룩스 공식 상표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보호기간 종료 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베네룩스 상표사무소 홈페이지 : <https://www.boip.int/en/entrepreneurs/trademarks>

이 밖에도 EU 지재권청(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EUIPO)이 부여 및 관리하는 EU 상표가 있다. 이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한다. EU 상표는 EU 전체에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활동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동 상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EU 회원국 내 상표권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한 회원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다른 회원국 내에서도 자동으로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U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포장은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시각화된 자료(graphical representation)는 물론이고 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디지털 파일 형태의 상표 등록 또한 가능하다. EU 상표 출원 시, 상표권에 대해서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등록 후에는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할 수도 있다.

- EU 지재권청 홈페이지 : <https://euipo.europa.eu/ohimportal/fr>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벨기에에 진출한 많은 기업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하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벨기에에는 근로자 보호법이 엄격하므로 예기치 않았던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기에 기업 청산 및 철수는 크게 해산(Dissolution), 청산(Liquidation) 등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업 청산은 크게 자발적 동기, 법에 따른 결정,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청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벨기에에서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개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부채가 없는 경우 간소 절차를 선택 할 수도 있다.

□ 표준절차

법인격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해산과정 후 청산을 통해 기업의 법률 및 재산관계가 마무리되며, 이후 사업자 등록부에서 기업등록을 말소 하면 기업 청산이 완료된다. 회사 청산이 결정되었으면 주주총회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회사대표로부터 작성된 법적 근거
- 자산 및 부채가 명시된 자산 운용 보고서(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 위원(Commissioner) 보고서. 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회계사의 보고서

1) 청산인 임명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으면 한 명 이상의 청산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대표자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며, 기업 청산의 원인이 법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경우 청산인은 기업에서 임의로 임명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지명된다. 법원은 기업에서 임명한 청산인의 자격을 검토하고 만약 청산인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임명을 해제할 권한을 지닌다. 이 경우, 청산인은 법원으로부터 지명받게 된다. 한편, 청산을 원하는 기업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 다수의 청산인 후보를 지정한 후 법원에 제출해 법원에서 청산인을 직접 지명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2) 청산 보고서 작성 및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산 만료 한 달 전에 관련 보고서를 본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사 채권자에 변제를 하며 모든 부채의 변제가 완료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때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된다. 한편, 잔여 채무가 있을 시 회사 청산은 불가능하며, 일련의 청산 계획은 상업재판소의 승인 받은 후 시행되어야 한다.

3) 청산문 제출

청산인은 청산절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쯤에 해당 상업재판소 기록부(Grefte du tribunal de commerce)에 가서 기업 청산 상황을 담은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산절차 개시 1년후 부터는 1년에 한번 제출하면 된다(기업코드 Code des societes 제 189 bis 조항). 이 밖에도, 주주총회로도 관련 세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총회로부터 청산 종결에 대한 승인을 얻으면 이를 상업재판소에 신청하고, 벨기에 왕령(Moniteur belge)에 청산 종결에 대한 총회의사록을 공고한다. 왕령 공고 시 기업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4) 말소

이후, 벨기에 사업자 등록부(Banque carrefour des entreprises)는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기업을 말소한다. 청산 종료 후에는 공증인의 관여 의무는 없으나 제반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청산 종료 후에도 수동적 법인(passive legal entity) 형태로 5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추가적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조건부 간소 절차

청산 시 채무가 없으며 주주로부터 만장일치 동의를 얻고 별도로 임명된 청산인이 없는 경우, 위의 상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빠르게 청산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외부 회계사와 감독인 각 1명을 지정해 최근 3개월 내의 기업 자산 및 채무 상황 보고서(active et passive)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이사회 청산 동의를 얻으면 즉각적 청산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공증서류를 상업재판소에 제출하고 벨기에 왕령(Moniteur belge)에 종결 공고를 내면 청산이 완료된다.

o 벨기에 내 청산 및 철수 전문 법무법인

- Novalis : 전화번호 +32.2.513.19.62. 이메일 info@novalis.law. 홈페이지 www.novalis.law

- Liantis : 전화번호 +32.2.212.22.30. 이메일 bruxelles@liantis.be. 홈페이지 www.liantis.be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 인구수 : 11,584,008명(2022년 발표)
 - 인구성장률 : 0.54% (2022년 발표, 벨기에 통계청기준)
 - 평균연령 및 인구구성 : 평균연령 41세이며 인구구성 비율은 노동인구(15~64세) 64%, 유아 및 젊은 층(0~14세) 17%, 고령층(65세 이상) 19% 차지
 - 경제성장률 : 2.2% (2022년, EIU 예상치)
- <자료원 : 벨기에 통계청, EIU 리포트>

소비 성향

1)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시장

벨기에는 연방정부로 브뤼셀 및 왈로니아 지방은 프랑스어,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일부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문화와 사고방식, 소비자 행동양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도가 위치한 브뤼셀 지방의 경우, 외국인 거주인구 비율이 40% 가량으로 매우 다국적 성향을 띠는 국가이다.

트렌드와 소비성향 역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국가(ex. 왈로니아 및 브뤼셀 : 프랑스, 플란더스 : 네덜란드)와 많이 유사해, 유럽 진출 시 테스트 시장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참고로 제품의 패키징 및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독일어와 영어 옵션이 제공되기도 한다.

2) 소비자 성향 및 관습

벨기에는 도로, 철도, 해운 등 교통망이 발달해 있으며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망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벨기에 시장은 전 세계 상품이 모여들어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입 상품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명과 그와 연계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벨기에는 빈부 차이가 작고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로, 국민 소득은 높은 편이나 조세부담률 또한 높아 총소득보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지니고 있다.

3) 소비자 구매 트렌드

- (포스트 코로나에 따라 변화된 소비패턴)
- 코로나 여파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소비 트렌드도 따라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었다. 2020년과 2021년 락다운 조치 시행에 따른 오프라인 상점의 영업중단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온라인 쇼핑물 및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2022년에는 기존 온라인 쇼핑의 주요 품목이던 의류나 생활용품 뿐 아니라 식료품에 까지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었다.

또한 락다운 기간의 예외적인 재택 근무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도 직장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따른 홈 오피스 인테리어 및 DIY 분야가 크게 성장했으며 부동산에서는 정원이 있는 집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음식 배달앱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등 식료품 전반적으로 신규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의 감염방지 위해 번잡한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 자전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속도와 충전 후 운행 거리가 개선된 제품들이 출시되며 고가의 전기 자전거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 제품 구매)

환경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브랜드 또는 가격 중심의 구매에서 친환경적 소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가 지속해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요소가 되고 있다. 화장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자 전 부분에서 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품뿐 아니라 포장재에도 신경을 써 지나친 플라스틱 패키징이나 포장재가 많이 사용된 제품을 꺼리고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에 대한 소비자 및 유통업자의 선호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 (에너지 효율 및 전력 저감 우수 제품 선호)

'21년 부터 시작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22년 러-우 전쟁 영향으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전기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 난방의 경우 EU 역내 가스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가스 난방의 대체재인 히트 펌프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는 2025년부터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는 가스 난방이 아닌 전기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 중에 있다. 법안은 2026년부터 추진을 목표로 했으나 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1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하게 벨기에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일도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노베이션 역시 의무화될 전망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전쟁 영향으로 인한 예외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 부족으로 시장이 주춤하는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건축물 리노베이션에 필요한 제품,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가스 난방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 및 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K-pop, K-드라마, K-뷰티 등 벨기에 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 지속되고 있다. 벨기에 내 자체적으로 설립된 한류 관련 비영리단체 'K-팝 벨기에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정기적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비롯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주 벨기에 유럽연합 및 한국문화원 등의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초기 한국 정부의 빠른 코로나 대응에 대한 관심과 한국 의료 수준의 높아진 위상으로 위생·의료 용품에 대한 수요에서부터 차세대 백신개발 협력 가능성까지 K 브랜드 이미지가 현지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향상된 한국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져 전자기기와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산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해, 이전에는 라면, 음료수, 과자 등 한국산 제품은 아시아 마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일반 대형 식품 유통망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많은 현지 식당들이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초기에는 벨기에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쏻, 흑설탕, 쌀 등 자연 추출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제품 전반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과거 유럽 진출에 성공했던 회사들이 유럽 시장 내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황이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는 기초 라인 제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의 수요를 넘어, 현지 화장품 회사들도 한국 화장품의 품질을 인정해 한국 제조 업체에 OEM을 문의하는 등 한국 화장품이 화장품 업계 전반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상황이다. 화장품 인증 및 컨설팅 현지 기업인 Biorius에 의하면, 2022년 유럽 화장품 시장은 비건 제품, 제품 용기와 포장에서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자연 친화적 제품, 즉 클린 뷰티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업체들도 이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출시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미팅 시 유의사항

비즈니스에 있어서 벨기에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서론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언제 본론이 나올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간단히 인사말을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에 대해 그림을 그리든지 종이에 써가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발표하거나 대화를 하는 도중 혹은 식사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휴대전화 사용을 주의하며, 급한 용무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회사 내부 보고용으로 미팅할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이것 또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이다.

바이어와의 상담 시에는 많은 기업이 가격정보 이외에도 딜리버리 조건, 통관, 지불방법 등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을 주는 것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만약 제시하는 물품의 주요 정보(가격 제외)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상담 전에 미리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품 카탈로그를 준비하고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을 추천하는데, 벨기에 바이어들은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본 후에 상품의 재질, 기능, 시장성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벨기에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과 미팅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상당수 있다고 무역관에 밝혔다. 상담 도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되물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바이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Yes'로 대답하고 나중에 회사로 돌아와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하려는 제품과 바이어 업체가 원하는 제품 사양과 맞지 않는 경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관련 대화를 지속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직접적인 관련 바이어가 아닐지라도 시장정보 등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바이어를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보수적인 벨기에 기업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면 아주 싫어한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신용 거래가 어렵게 되고 차후 신용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첫 거래 시 수출 가격이나 발주 기간, A/S 부품 공급 등 거래 조건을 제안할 때 차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면 이를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현지 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울 때는 상황 설명과 함께 바로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거래 신용상 훨씬 바람직하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 동남아 수입 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업체들은 L/C 무역 결제에 익숙하므로 L/C 대금 지불을 요구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로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장거리 해외 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업체 가운데에는 L/C나 통관절차 등 국제무역

거래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상품 인도에 앞서 상품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꺼리는 수입상들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물품 인수 후 3개월 지불이 통용되므로 동일한 대금 지불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지불 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용 면에서 중요하다.

이 밖에도, 무역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조건들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제품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는 거래조건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하역 또는 벨기에 세관에 묶여 통관이 지연되면 모든 발생 비용을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다른 등으로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FOB 또는 CIF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다.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환율 변동,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변동 등 수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가까운 미래의 변동을 예상한 후 가격 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오름세의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현지 바이어에게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L/C를 개설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 또는 운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한국 기업의 신용은 물론 현지 바이어도 그의 고객에 대한 신용 상실로 판매망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즈니스 거래 시 유의할 점

유럽 중심부에 있는 국가답게 국제적이며 다양한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는 테스트 시장의 특성이 있다. 즉, 전 세계로부터 매우 다양한 상품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 현지 물품 재고 부족으로 급히 신규 공급업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게다가 기존 공급업체에 만족하는 경우, 거래처를 유지하려 하지 굳이 신규 공급업체를 다시 찾아서 거래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를 지속해온 기업 담당자 간의 사적인 유대감이 매우 단단하므로 현지 기업에 신규 거래 제안을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규 공급업체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거래를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접촉 이후 첫 거래까지 오랜 시간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이어와 미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연락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연락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당장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말고 신규 디자인과 모델,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대로 제품 소개자료, 샘플 등을 보내주는 등 지속적 관계를 이어나가 향후 오더를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첫 거래 시에는 대량거래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소량으로 점차 신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벨기에 바이어들은 한 번 신뢰가 쌓이면 거래처를 가능한 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가 무르익은 후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부리는 현지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기업의 실존 여부를 확인해 무역 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벨기에 경제부 사이트에서 현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벨기에 기업 실존 여부 확인 사이트: <https://kbopub.economie.fgov.be/kbopub/zoeknummerform.html?lang=en>

만약, 기업 실존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KOTRA 바이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마케팅 전략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2020년 부터 2년간 벨기에 내 대규모 전시회·박람회 등이 취소 또는 화상으로 대체되고, 재택근무 시행이 일상화되면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형태가 벨기에의 비즈니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며 다시 대규모 연례 전시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화상 비즈니스 상담은 해외 마케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화상 상담은 벨기에에서 비즈니스의 한 형태로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맞춰 벨기에 정부도 5G 상용화 등 통신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화상상담 시, 바이어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담 전에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품 스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재 제품의 경우 크기가 작으므로 상담 시 카메라를 통해 제품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계 등 부피가 큰 제품은 불가능하므로 제품의 시연 동영상, 화상 설계도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비대면 상담의 효율성을 보다 증대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화상미팅의 경우 대면미팅 대비 바이어 집중도가 쉽게 떨어지고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긴 회사소개 등은 가급적 피하고 제품 특징, 타사대비 강점 위주의 설명을 위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담 전, 리허설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중요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어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미팅약속

벨기에 기업과 미팅 약속을 잡을 때에는 날짜가 임박해 잡지 말고 최소 2~3주 전에 잡아야 한다. 날짜가 임박해 약속을 잡으면 계획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벨기에인들은 약속 시각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므로 미팅 전 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고 만일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는 목적, 방문자 이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상대방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7~8월 및 12월 중순~1월 초까지는 여름휴가 및 크리스마스 휴가로 2~4주간 장기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에는 미팅 약속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도 벨기에 인건비가 매우 높으므로 업무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중시하고, 실적이 없을 경우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속의 주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속시각에 늦거나 갑자기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알리고 미안함을 표명해야 상대방에 신뢰를 줘 추후 비즈니스 관계를 원만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인사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비즈니스 관계의 일반적 인사방법이다. 인사할 때는 손을 가볍게 잡으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데, 인사말을 건넬 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며 통성명을 하면 한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더욱 친근한 사이에서는 서로 뺨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를 비즈(Bise)라고 부른다. 비즈를 하는 방법은 왼쪽 뺨끼리 맞댄 후 입으로 가볍게 ‘쾅’ 소리를 내면 되는데, 남성들끼리는 통상적으로 비즈보다는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악수하는 경우에는 손에 너무 힘을 꼭 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잡게 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힘을 주면서 몇 초간 악수하면 된다. 한편, 악수는 두 손으로 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비즈니스 상담에 들어가기보다는 날씨나 상대방도 알고 있을 만한 큰 세계적인 이벤트(월드컵 등)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미팅 전에 미리 명함을 비롯해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브로슈어 등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가 상담을 시작할 때 바이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미팅이 끝난 후에는 첫 인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악수를 교환하며 마무리한다. 헤어질 때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합시다’라는 우리나라식의 인사말을 하는 경우, 벨기에 사람들은 정말로 나중에 식사해야 한다고 약속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3) 선물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간소한 기념품 증정은 초기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때로 일부 한국 업체들은 한과 또는 인삼차와 같은 건강식품류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받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선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특유의 식품보다는 한국 전통이 가미된 기념품 또는 실용성이 있는 홍보 용품을 선물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에 초대됐을 때에는 빈손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예의이다. 통상적으로 와인, 꽃(특히 여성의 경우) 등이 초대선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초대한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쿠키나 초콜릿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현지 파트너 집들이에 초대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티슈나 세제를 집들이 선물로 주는 것이 관습이지만,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없으므로 화장지를 선물로 주는 경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초대선물과 비슷한 꽃이나 와인, 초콜릿 등을 준비해가는 것을 권한다. 한편, 선물로 꽃을 선택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벨기에에서 국화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국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벨기에인들은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 만약 포장된 선물을 받고 열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가져간다면 이상하게 여기며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 바로 열어보고 선물이 마음에 들거나 좋다는 반응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다.

4) 복장

벨기에 사람들은 비즈니스 미팅 시 남녀 모두 정장을 입는 편이다. 색상과 멋진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기하는 색상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검정, 곤색, 회색 등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선호하고, 너무 화려한 색깔은 피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인들은 외모, 복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깨끗하고 말끔한 복장과 단정한 차림으로 미팅에 임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벨기에 날씨는 한국보다 변덕이 심해 아침에는 맑다가도 오후에 비바람이 부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첫 비즈니스 미팅에 젖은 채로 나가는 것보다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우산과 방수기능의 외투를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5) 식사

벨기에인들은 식도락가이고,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대화가 식사를 나누면서 이루어진다. 사업상 대화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 경우 딱딱한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좋은 식사를 나눌 때 오히려 쉽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선택도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벨기에는 레스토랑 예약문화가 발달하여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을 해두어야 하며, 보통 비즈니스 식사 시간은 12시 30분~14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진다.

현지 레스토랑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레스토랑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예약한 경우에는 어떤 레스토랑을 갈 예정인데 괜찮은지 상대방의 의사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벨기에인들 중에는 무슬림, 채식주의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전에 상대방의 식성을 미리 파악해 무슬림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피하고 술을 권하지 않는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겠다.

식사 중,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벌리거나 말하는 것을 지양하며 찹찹 소리를 내거나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면을 먹게 되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것에 대해 예의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면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르는 한국과는 달리 한 손으로만 따르며, 술잔을 받을 때 역시 한 손으로 받는다. 또한, 건배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음식을 가능한 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현지 음식을 먹으며 느끼하다고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김치를 꺼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 상대방이 다 먹지 않았는데 일어날 채비를 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기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코를 훌쩍거리거나 코를 더럽고 불쾌하게 여기므로 코가 나올 때에는 고개를 돌려 살짝 푸는 편이 좋다.

6) 언어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공동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다스 공동체 그리고 독일어권 공동체와 같이 총 세 개의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왈로니아(프랑스어)는 벨기에 전체 인구의 40%를, 플란다스(네덜란드어)는 59%, 독일어권 공동체는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 업체와의 약속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지만, 약속을 잡기 전에 담당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영어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7) 근무/영업시간

벨기에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은 주당 38시간이며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은 산업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 산업이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근무 시작시각은 직장마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 사무직은 통상 7~9시 사이에 시작된다. 또한, 언어권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덜란드어 권의 직장인들은 프랑스어 권 직장인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며(통상 7~8시), 점심시간도 30분 정도만 사용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프랑스어 권 직장인들은 9시 경에 출근을 시작하고, 평균 1시간 반가량의 점심시간을 사용하는 대신 퇴근은 그만큼 늦게 하는 편이다.

상점들의 영업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상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19시, 슈퍼마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 30분~20시이며 금요일에는 21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다. 구청과 같은 지역 행정 기관의 근무 시간은 통상 평일 8시~15시 반(점심시간 12~1시)까지 이나, 목요일은 예외적으로 1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도 있다. 우체국은 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9~12시 반까지 오전 근무를 하는 지점도 있다. 국경일(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경일이 낀 연휴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두는 것이 좋다. 일요일에는 빵집, 꽃가게, 'night shop'(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가게)과 같은 일부 상점이 문을 열며, 요즘에는 벨기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Delhaize와 Carrefour 역시 일부 지점이 일요일에 영업하기도 한다.

8)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 시간으로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16시이다. 서머타임제(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3시로 변경)를 시행할 동안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평소보다 1시간 짧아져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17시가 된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머타임 해제일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로, 새벽 3시에 2시로 변경됨) 시차는 다시 8시간으로 정상화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www.amazon.fr/ www.amazon.nl/ www.amazon.de/) ○ 개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은 유럽 주요도시에 물류창고를 운영 중이다. 벨기에에서 다른 유럽국가의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여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하며, 벨기에 소비자들은 언어 및 물류 편의성을 이유로 아마존 네덜란드, 아마존 프랑스, 아마존 독일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아마존은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매출규모는 4,698억 달러, 고용인원은 160만 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 판매 행사인 프라임 데이(Prime Day), 번개딜(Lighting Deal),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등 기존 미국 아마존 자체 행사 외에도 유럽 아마존 플랫폼에서는 유럽 여름(7~8월), 겨울(12~1월) 세일기간에 맞추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Bol.com (www.bol.com) ○ 개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아마존과 함께 벨기에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벨기에-네덜란드 유통기업인 아홀드 델하이즈 그룹(Ahold Delhaize Group)을 모기업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만큼 벨기에, 네덜란드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볼닷컴은 1999년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 베르텔스만(Bertelsmann AG)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2년 네덜란드 유통기업 아홀드그룹(Koninklijke Ahold NV, 현재 Ahold Delhaize Group)에 인수되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55억 유로, 고용인원은 약 4,0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기기, 주방용품, 도서, 음반, 장난감, 운동기구, 캠핑장비, 유아용품, 정원관리용품, 미용용품 등 약 3,300만 가지 소비재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 특징: 2011년부터 자체 상품뿐만 아니라, 소매업체에게도 플랫폼을 개방하여 약 30,000여 개의 소매업체가 볼닷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과 유사한 셀렉트(Select)서비스를 도입하여, 무료배송·무료반품·추가할인·적립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Coolblue (www.coolblue.be) ○ 개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쿨블루는 전자제품 온라인 쇼핑몰로 벨기에, 네덜란드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있다. 품목이 전자 제품인 만큼 자체 수리, 품질보증기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시연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하여 벨기에 6곳, 네덜란드에 1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20년 7월 독일 웹사이트(https://www.coolblue.de)도 개설하였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 MP3, PDA,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개별 웹사이트를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로 통합하며 설립되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23억 유로이며, 고용인원은 약 7,0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텔레비전, 청소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형주방기기,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및 악세사리 등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 특징: 쿨블루는 단순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소규모 제품에 대한 자전거 배송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 판매와 설치 서비스(네덜란드지역에 한함)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예산에 따라 고용인의 가정에 최적의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해주는 하우스워크윈클(Thuiswerkwinkel; House workshop)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약속을 지켜 바이어의 신뢰감을 얻어낸 S사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유럽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던 차에 브뤼셀 무역관을 찾았다. 무역관은 S사의 생산품목과 맞는 벨기에의 잠재 바이어 B사를 발굴했고, B사 바이어와 사이버 상담회를 제안했다. 두 업체 간의 사이버 상담회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상담회 후 S사는 직접 벨기에 바이어 B사를 방문하기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벨기에 바이어 B사는 한국의 S사 제품에 대해 약간의 관심은 보였으나, 정확한 가격 견적을 묻거나 샘플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S사에서 벨기에를 방문했던 시기는 2013년 1월이었는데 하필 벨기에 사상 최고의 폭설이 내리던 때였다. 폭설로 대중교통들도 운행을 멈췄으며,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브뤼셀 무역관에서 바이어 B사까지는 보통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이날은 폭설로 3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바이어 B사는 폭설로 인해 S사와 브뤼셀 무역관이 예정대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아주 놀라워했고, 이상기후에도 미팅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에 큰 감동을 하였다고 했다. 이날 미팅은 첫 오더의 성과로 이뤄졌으며, 이후 S사는 바이어의 세부 요청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2) 한국-EU FTA의 관세혜택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 있었던 A사

벨기에 섬유산업은 국내 생산이 매우 미미한 상태라 거의 수입에 충당되고 있으며, 의류 등 소비재와 더불어 합성 원사 또는 편직물 위주의 오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직물을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 FTA 발효 이전부터 벨기에 기업과 거래를 해왔었으나, 바이어로부터 A사 제품가격이 터키나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높으며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이윤만을 남기고 제품 거래를 해오던 터라, 더 이상의 가격 인하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FTA 발효로 종전 8%였던 관세가 무관세로 되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A사는 특별히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수출하던 품목 가격이 인하됐고, 벨기에 바이어의 요구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바이어와 거래처를 계속 유지하며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3) 끈기 있는 접촉 시도로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낸 A사

한국에서 무선영상전송장치를 생산하는 A사는 높은 기술력과 차별화된 기능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개척해왔으나, 국내 시장의 작은 규모에 한계를 느껴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전시회 기간 중 만났던 벨기에 업체 중 한 바이어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하던 국내 기업은 이 같은 상황을 브뤼셀 무역관에 문의해왔다. 무역관에서 해당 바이어를 접촉한 결과, 당시 벨기에 바이어는 전시회에서 A사와의 미팅 이후 동사에 자사 인콰이어리를 보내는 등 수차례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계약성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었다. A사와 브뤼셀 무역관은 그동안 양측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벨기에 바이어로부터 첫 샘플 오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벨기에의 까다로운 통관 시스템으로 샘플제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무역관과 A사는 더욱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해 바이어가 차질 없이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바이어의 요구사항에도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A사는 결과적으로 바이어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꾸준히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유럽 독점판매계약 추가 체결 등 향후 수출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4) Director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수출을 이뤄낸 C사

인테리어용 석자재를 생산하는 C사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으나 유럽시장은 신규 공급처에 대한 보수성과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역관에서 발굴한 벨기에 바이어 D사는 유럽의 인테리어용 석자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로, 유럽 전역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다. 'Belgian Quality'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품질에 민감한 바이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객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접촉 초반부터 샘플 테스트를 제안해 바이어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많은 기업은 바이어를 접촉하는 경우 통상 구매담당자나 기술 담당자를 파견하여 제품을 홍보하는데, 보수적인 유럽 바이어들의 특성상 검토도 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특히 업무 분장이 명확한 유럽 기업들은 구매부서에서는 품질부서의 승인을 핑계로, 품질부서에서는 공급처에 대한 선정 권한이 구매부서에 있다는 핑계로 신규 공급 업체들과의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관에서는 역으로 사장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고, 샘플 테스트 제안이 Top down 방식으로 현업 부서에 전달되도록 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샘플 테스트 결과 확인 및 성약 구체화를 위해 고객사를 동반해 바이어를 방문했으며, 적극적인 협업 의지를

어필해 바이어로부터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재 동사는 벨기에에서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5) 전시회 부스 참가를 통해 바이어들에게 어필한 D사

디지털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를 생산하고 있는 D사는 국내에서는 이미 선도적 중견기업이나 해외시장에서 사업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을뿐더러 단독으로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동사는 구매력이 높고 디지털 프레스 품목 수요가 증가 중인 유럽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KOTRA 브뤼셀 무역관과 월드챔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D사는 KOTRA의 월드챔프 지원사업을 통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16 Drupa 전시회에 비교적 큰 독립부스를 가지고 참가했다. 대형 디지털 라벨 인쇄기 장비까지 준비해 전시회 현장에서 시연을 보였는데, 많은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방문객에게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딜러 51개사, 엔드유저 63개사 등 총 114개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그리스 업체 G사와는 딜러 계약을 체결해 현장에서 39만 유로에 달하는 대표 장비 1대 판매계약을 따냈다. 향후, 동사는 약 50개사 딜러 희망업체 중 18개사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가망 딜러 선별 및 집중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딜러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6)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취소될 뻔했던 성약 이행

한국-EU FTA에 의거, 대다수의 한국산 제품은 원산지증명을 통해 벨기에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벨기에 바이어 R사는 국내 수출업체와 3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X-ray 기기 수입성약을 앞두고 무역관에 관세부과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동 바이어사는 해당 품목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지만, 수입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성약 취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관은 한국-EU FTA 발효로 해당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바이어측에 즉시 알렸으며, 국내 수출업체에도 접촉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했다. 한국-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6,000유로 초과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역관 측의 안내를 받은 국내 업체는 정부 지원금을 보조받아 인증수출자 등록을 마칠 수 있었으며, FTA 무관세 혜택을 받아 벨기에로 관련 기기를 무사히 수출할 수 있었다.

7)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해 제품 수출 중인 L사

사다리차를 제조 중인 국내 기업 L사는 KOTRA의 지역 강소기업 시장조사를 통해 브뤼셀 무역관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긍정적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사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다리차의 경우 기존의 상용 트럭에 사다리차를 장착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벨기에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운전면허인 B 타입 면허로 3.5톤 트럭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모델에 장착할 사다리차 개발과 장착 후 제한무게 3.5톤을 넘지 말아야 한다. 동사는 바이어와 협의 끝에 관련 모델 개발을 완료했으나, 장착 후의 총 무게가 3.5톤을 넘어 수출을 위해서는 무게감량이 필수인 상황이었다. 이에,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닛산 모델 차량을 조사해보니 동일한 모델(3.5톤 NT400)임에도 캐빈 및 바퀴 종류에 따라 총 9가지의 세부모델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별 브로셔마다 무게측정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각 세부 모델별 무게와 무게측정 기준을 체크, 바이어에게 사다리차 장착 후 제한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 모델을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바이어는 무역관에서 제공한 차량 및 무게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구입 및 사다리차 2대(약 5만 불)를 1차로 주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주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8) 현지 유통기업과의 독점계약 체결로 벨기에 시장에 진출한 S사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 체외진단시약을 수출 중인 S사는 유럽 허브인 벨기에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번에 다양한 질병 원인을 동시 분석하는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원천기술 보유로 해외 여러 곳에서 큰 호응을 받는 등 시장성은 충분히 입증된 상태였으나 어떻게 처음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제품 포지셔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했다. 이에, 동사는 여러 파트너사와 다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독점적으로 자사 제품에만 집중해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을 통해 벨기에 내 유망 파트너 4개사를 선정, 미팅을 진행해 후보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만 집중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첫째 연도에 약 28만 USD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연간 100만 USD 이상의 성약액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벨기에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9) 코로나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M사

엘레베이터 부품을 제조업체 M사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화상상담을 통해 벨기에 첫 수출에 성공했다. 동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벨기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해외시장 진출이 처음이라 KOTRA의 수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브뤼셀 무역관은 잠재 수입기업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바이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화상상담을 주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여러 번의 화상상담 후, 2020년 9월 첫 수출성약이 이루어졌고 무역관은 수출과정에 필요한 서류, 통관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해 첫 수출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 벨기에는 거래선 발굴과 시장진입이 어려운 반면, 한번 바이어와의 인연을 맺은 후 거래선이 바뀌는 일은 드물어서 앞으로도 M사의 지속적인 대벨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10) 진출 전 CPNP 등 의무사항 구비완료해 수출기회를 잡은 Y사

벨기에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 Y사는 2020년 말 KOTRA 해외시장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잠재 바이어사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화상상담 진행을 시도했다. 벨기에 바이어사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위해 그동안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으나, EU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CPNP 등록을 한 기업들은 드물었다고 밝히며 CPNP가 없는 기업과의 미팅은 시간적 낭비라는 단호한 의사를 전했다. Y사의 경우, 벨기에를 포함한 EU 시장진출을 위해 이미 CPNP를 사전 획득해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바로 화상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상담 후 Y사의 샘플을 받은 바이어사는 품질에 만족했으며 올해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 사의 경우, 벨기에 화장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이에 대해 인증 획득 등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출 잠재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잡을 수 있었다.

11) 한류의 인기를 타고 유럽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A사

K-POP 음반과 굿즈, 화장품을 취급하는 A사는 한류 열풍이 부는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차에 브뤼셀 무역관에 지사화 사업을 신청했다. 마침 벨기에에서는 2021년 한국과의 수교 120 주년을 맞아해 각종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었고,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진행중이던 잠재 바이어들을 행사에 초대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행사기간동안 운영된 판매 부스에서 A사가 준비해온 제품은 모두 품절되었으며, 홍보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60달러 정도의 초기 수출액은 21년 41만불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제는 현지에서 물건을 유통하는 쇼핑몰까지 개설한 A사의 앞으로의 사업이 기대된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코로나에 따른 벨기에 입국 유의사항
 - 한국 국적자는 3개월 미만 동안 비자 없이 벨기에를 여행할 수 있다. 2022년 9월 28일 기준, 벨기에는 코로나19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없다.
- 비자 종류 및 필요 서류
 - (종류)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는 비자발급이 필요 없으며 90일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VISA D에 해당하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 동반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구원 비자, 자영업 비자가 필요
 - (공통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비자 접수 방문 예약,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비자별 추가 필요 서류 등

(1) 학생 비자

- 비자 수수료: 252,000원
- 진행 수수료 208유로 송금 확인서
- 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 프랑스어권 학술 기관 학사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이전학력 확인서 필요
- 재정 보증서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 건강진단서
- 영문 질문지(벨기에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교환학생, 벨기에 장학생, 선발시험 통과 학생은 면제)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2) 취업 비자

- 비자 수수료 252,000 원
- 복합 허가서(Permis Unique) 승인 확인서
(취업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사전에 벨기에 기업과 고용 계약을 한 경우에만 취업 비자가 발급됨)

(3) 가족동반 비자

① EU나 EEE 회원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자와 동반

- *만 6세 이상의 경우에만 비자 수수료 252,000원 필요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진행 수수료 181유로 송금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양면)과 여권의 사본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재정 능력 증명
- 벨기에 내 충분한 거주지 증명
-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 가입 및 가입예정 혹은 여행자 보험 증명

- 건강진단서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② 벨기에 시민권자와 동반

- *비자 수수료 필요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필요하지 않음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진행 수수료 181유로 송금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 (양면)과 여권의 사본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재정 능력 증명
- 벨기에 내 충분한 거주지 증명
-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 가입 및 가입예정 혹은 여행자 보험 증명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③ EU나 EEE 회원국 시민권자와 동반

- *비자 수수료 및 진행 수수료 필요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필요하지 않음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만 18세 이상인 경우,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 (양면)과 여권의 사본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4) 워킹홀리데이 비자

- 비자수수료 252,000원
- 진행수수료 201유로 송금 확인서
- 최소 350만원 이상 보유 잔고 증명서 및 신용카드 확인
- "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 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건강진단서

(5) 연구원 비자 (박사과정 학생, 박사후 연구원, 방문교수, 호스팅 계약 경우에 해당)

- 비자 수수료 252,000원(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 결제 가능)
- 진행 수수료 126유로 송금 확인서
- 호스팅 계약서(연방과학 정책 사무소에서 인증된 기관의 대표 서명 및 연구원 월급 명시)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건강진단서

(6) 자영업 비자(자영업 카드 발급자에 해당_ 자영업 카드는 사업을 할 지역(브뤼셀, 왈로니아, 플랜더스)에서 요청할 수 있음)

- 비자 수수료 252,000원
- 진행수수료 201유로 송금 확인서
- 자영업 카드 발급 증명서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건강 진단서

- 체류(외국인 등록)

- 벨기에 입국 후, 주거지 근처의 해당 꼬문(Commune, 구청에 해당)을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증(ID card)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구청 검색 홈페이지: [http://www.belgium.be/fr/adresses_et_sites/overview?f\[0\]=field_authoritylevel%3A38](http://www.belgium.be/fr/adresses_et_sites/overview?f[0]=field_authoritylevel%3A38)

- 체류증 발급

- 구청(꼬문)에 체류증 발급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구청에서 작성했던 주소로 경찰이 방문해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 후 거주확인 서류에 서명하게 된다. 부재 중인 경우 경찰이 방문했다는 편지를 우편함에 두고 가므로 이를 들고 주소가 적힌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이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약속시간을 잡고 재방문을 요청한 후 거주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 거주확인 서류를 들고 구청에 재방문해 제출하면 1~2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내에 체류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들고 구청을 방문해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구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5~40유로 정도이다. 벨기에 정부는 체류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긴급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경우 발급비용이 180~230유로로 일반 절차보다 비싸지만 2~4일 내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체류증 제도

- 벨기에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장기체류 허가증(최대 5년)이 영주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이 가능하다. 단기체류는 C card(셴겐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며,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의 경우는 D card에 속한다.

- A card : 임시체류증

- B card : 일반 단기 체류증

- C card : 일반 단기 체류증(전자)

- D card : 장기 체류증

- E, E+ card : EU 시민권자 체류증(EU 시민권자에게만 발급)

- H card : 블루카드로, 고급인력(hautement qualifié) 체류증(무제한 갱신 가능)

- F card : EU 배우자를 두고 있는 역외국민 거주증

- F+ card : EU 배우자를 두고 있는 역외국민 영구 거주증

- 노동비자 간소화

- 2019년 1월 3일부터 역외국민의 노동허가 및 장기체류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노동허가 및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복합허가서를 관할 구청(Commune)에 제출하면 사전심사 없이 구청에서 지방 노동청(노동허가) 및 연방 이민청(장기체류)에 서류를 보내 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 두 곳의 기관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중복으로 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 변경된 개정법에 따라, 고용주는 지방 노동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방 노동청에서 심사를 거쳐 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통과 시 서류 복사본을 연방 이민청에 송부해 두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로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종전에는 9개월 소요). 단, 복합허가서 신청 대상자는 블루카드 소지 및 법인 간 파견근로자, 단기체류, 방문협정에 따른 연구원 등은 제외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외화 반·출입 한도

- 10,000 유로 이상 반입/반출 시 세관 신고가 의무다(벨기에를 포함한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

-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알코올 22% 미만의 주류에 대해서는 2리터까지 가능. 와인의 경우, 4리터가 허용되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
- 담배 : 200개비
- 기타 물품 : 항공·해상여행자의 경우, 총 430유로 상당 물품까지 허용되나 육로·개인항공·내륙수로 여행자의 경우, 300 유로 상당 물품까지 허용(주류, 담배 및 기타 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일반상점 또는 면세점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의약품 : 여행 기간에 여행자 사용 목적에 필요한 양(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의약품 증명서 지참 권고. 해당 증명서는 해당 약품의 처방 사실에 대한 의사 증명서가 있어야 함)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2 2 675 5777
주소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be-ko/index.do
비고	영사과민원실(월-금) 09:00-12:00 / 14:00-16:00

◦ 한국 문화원

전화번호	+32 2 274 2980
주소	Regentschapsstraat 4,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brussels.korean-culture.org

◦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 지부

전화번호	+32 2 639 0990
주소	Avenue Louise 66, 1050 Brussels, Belgium
홈페이지	http://eu.kita.net

◦ 벨기에 한글학교

전화번호	+32 4 75 26 60 28
주소	 Drève Richelle 146, 1410 Waterloo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schoolbe/www/introduction/index.htm

◦ 재 벨기에 한인회

전화번호	+32 472 27 15 15
홈페이지	http://belgium.korean.net
비고	이메일: limstrading@gmail.com (한인회 회장 : 임희재)

◦ 벨기에 한인과학 기술자 협회

홈페이지	http://koseabe.org
비고	이메일: koseabelgium@gmail.com

◦ 재벨 실업인 협의회

전화번호	+32 2 300 5930
주소	Ambiorixsquare 13, 1000 Brussels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벨기에 연방정부

전화번호	+32 2 501 02 11
주소	16, rue de la Loi,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belgium.be

◦ 브뤼셀 지방 정부

전화번호	+32 2 279 22 11
홈페이지	https://be.brussels/

◦ 왈로니아 지방 정부

전화번호	+32 1 718 17 19
홈페이지	http://www.wallonie.be
비고	이메일: http://www.wallonie.be/fr/nous-contacter-par-mail

◦ 플란더스 지방 정부

전화번호	+32 2 553 17 00
홈페이지	http://www.vlaanderen.be

◦ 불어권 공동체

전화번호	+32 800 20 000
주소	Boulevard Léopold II, 44 108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federation-wallonie-bruxelles.be
비고	이메일: ministerium@dgov.be

◦ 독일어권 공동체

전화번호	+32 8759 63 00
주소	Gospertstrasse 1 4700 Eupen
홈페이지	http://www.dglive.be

◦ 벨기에 연방의회

전화번호	+ 32 2549 89 02
주소	Rue du Lombard 69,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fed-parl.be
비고	이메일: parliaments_net@fed-parl.be

◦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 기획원

전화번호	+32 2504 60 00
주소	Avenue des Arts, 47-49,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plan.be
비고	이메일: info@planinternational.be

◦ 벨기에 재무성

전화번호	+32 2572 57 57
주소	Boulevard du Roi Albert II 33 bte 22, 1030 Brussels
홈페이지	https://finances.belgium.be

◦ 벨기에 중앙은행

전화번호	+32 2 221 21 11
주소	Boulevard de Berlaimont 3,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nbb.be
비고	이메일: centraledesbilans@nbb.be

◦ 벨기에 통계청

전화번호	+32 2277 65 05
주소	North Gate - Boulevard du Roi Albert II, 16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statbel.fgov.be
비고	이메일: statbel@economie.fgov.be

◦ 벨기에 연방무역청

전화번호	+32 2 206 35 22
주소	Rue Montoyer 3,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abh-ace.be
비고	이메일: secretariat@abh-ace.be

◦ 벨기에 법무부

전화번호	+32 471 61 48 23
주소	Boulevard de Waterloo 115.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s://justice.belgium.be/fr

◦ 벨기에 보건복지위생환경부

전화번호	+32 2 524 97 97
주소	Place Victor Horta 40 bte 10, 1060 Saint-Gilles
홈페이지	http://www.health.belgium.be

◦ 벨기에 국방부

전화번호	+32 8003 3348
주소	Kwartier Koningin Elisabeth Eversestraat 1 – Blok 11 114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mil.be

◦ 벨기에 내무부

전화번호	+32 2 500 20 65
주소	1 rue de Louvain,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s://ibz.be/fr
비고	이메일: info@ibz.fgov.be

◦ 벨기에 외무부

전화번호	+32 2501 81 11
주소	Rue des Petits Carmes 27,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diplomatie.belgium.be

◦ 벨기에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emploi.belgique.be
비고	이메일: infos@emploi.belgique.be

◦ 플란더스 지방 관광청

주소	Grasmarkt 61,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visitflanders.com

◦ 브뤼셀 지방 의회

전화번호	+32 2549 62 04
주소	Rue du Lombard 69,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parlbruparl.irisnet.be

◦ 플란더스 지방 의회

전화번호	+32 2 552 11 11
주소	Hertogsstraat 6, 1000 Brussel
홈페이지	http://www.vlaamsparlement.be
비고	이메일: algemeen@vlaamsparlement.be

○ 애노 지방 기관(Hainaut)

전화번호	+32 65 335 732
홈페이지	http://www.hainaut.be
비고	이메일: meetings.events@hainaut.be .

○ 리에주 지방 기관(Liege)

전화번호	+32 4279 32 00
주소	Haut Mar^e, 20. 4910 La Reid
홈페이지	http://www.provincedeliege.be
비고	이메일: serviceduconseil@provincedeliege.be

○ 나무르 지방 기관(Namur)

전화번호	+32 8177 51 82
주소	Chauss^ee de Charleroi 85 A 5000 Namur
홈페이지	http://www.province.namur.be

○ 룩셈부르크 지방 기관(Luxembourg)

전화번호	+32 63 212 711
주소	Place L^eopold, 1 6700 Arlon
홈페이지	https://www.province.luxembourg.be/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브라반트 왈로니아 지방 기관(Brabant wallon)

전화번호	+32 10 23 60 11
주소	Place du Brabant wallon 1 1300 Wavre
홈페이지	http://www.brabantwallon.be
비고	이메일: info@brabantwallon.be

○ 브라반트 플란더스 지방 기관(Vlaams brabant)

전화번호	+32 1626 70 00
------	----------------

주소	Provincieplein 1 3010 Leuven
홈페이지	http://www.vlaamsbrabant.be
비고	이메일 : info@vlaams-brabant.be

◦ 안트워프 지방 기관(Antwerpen)

전화번호	+32 3240 50 11
주소	Koningin Elisabethlei 22, 2018 Antwerpen
홈페이지	http://www.provincieantwerpen.be
비고	*한국에서 접속 시 링크 접속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림부르크 지방 기관(Limburg)

전화번호	+32 11 23 71 11
주소	niversiteitslaan 1 3500 Hasselt
홈페이지	http://www.limburg.be

◦ 동부 플란더스 지방 기관(Oost-Vlaanderen)

전화번호	+32 9 267 80 00
주소	Gouvernementstraat 1. 9000 Gent
홈페이지	http://www.oost-vlaanderen.be

◦ 서부 플란더스 지방 기관(West-Vlaanderen)

전화번호	+32 56 24 12 90
주소	Jan Van Eyckplein 2, 8000 Brugge
홈페이지	http://www.west-vlaanderen.be

◦ EU 집행위 공식 사이트

전화번호	+32 2 299 96 96
주소	Rue de la Loi 2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ec.europa.eu

◦ EU 이사회 공식 사이트

전화번호	+32 2281 61 11
주소	Rue de la Loi 175,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consilium.europa.eu/fr/home/

◦ RTBF(프랑스어권)

전화번호	+32 2737 39 39
주소	Boulevard Auguste Reyers 52, 1044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rtbf.be
비고	공영방송사

◦ BRF(네덜란드어권)

전화번호	+32 8759 11 11
주소	Kehrweg 11, 4700 Eupen
홈페이지	http://www.brf.be
비고	공영방송사 이메일: t.wimmer@brf.be

◦ Le Soir

전화번호	+32 2225 54 32
주소	Rue Royale 100,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esoir.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La Libre

전화번호	+32 2744 44 44
주소	Rue des Francs 79, 104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alibre.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L’echo

전화번호	+32 2423 16 11
주소	Avenue du Port 86C,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echo.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Trends

전화번호	+32 7835 33 03
홈페이지	https://trends.levif.be/economie/?cookie_check=1621437901
비고	벨기에 경제주간지

◦ L'avenir

전화번호	+32 8124 88 11
주소	Route de Hannut 38, 5004 Namur
홈페이지	http://www.lavenir.net
비고	벨기에 일간지

◦ RTL

전화번호	+32 2337 68 11
주소	Avenue Jacques Georgin, 2 1030 Schaerbeek
홈페이지	http://www.rtl.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De Standaard

전화번호	+32 2467 24 18
주소	Gossetlaan 30, 1702 Groot-Bijgaarden
홈페이지	http://www.destandaard.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De Tijd

전화번호	+32 8005 51 50
주소	Avenue du Port 86C,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tijd.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Het Nieuwsblad

주소	Katwilgweg 2, 2050 Antwerpen
홈페이지	http://www.nieuwsblad.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이메일: pascal.weiss@nieuwsblad.be

◦ Belgieninfo.net

전화번호	+32 2627 18 21
주소	Rue Jacques Jordaens, 34 ,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belgieninfo.net
비고	벨기에 일간지

◦ Inter Press Service

전화번호	+32 2732 69 16
주소	Rue de la Linière 11, 106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ipsnews.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LE VIF

전화번호	+32 5126 61 11
주소	Rue de la Fusée 50, 113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evif.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벨기에 기자 연합(AJP)

전화번호	+32 2777 08 60
주소	Maison des journalistes, Rue de la Senne 21,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ajp.be

◦ 왈로니아 지방 의회

주소	Rue Notre-Dame 1 5000 Namur
홈페이지	https://www.parlement-wallonie.be/
비고	이메일: courriel@parlement-wallonie.be

◦ The Brussels Time

홈페이지	https://www.brusselstimes.com/
비고	영문 일간지 이메일: info@brusselstimes.com

◦ VRT(플란더스 지방 언론사)

전화번호	+32 2 741 31 11
주소	Auguste Reyerslaan 52, 1043 Brusse
홈페이지	https://www.vrt.be/
비고	플란더스 지방 소식 전하는 언론사(라디오, 뉴스, TV)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05 EUR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1개	6.98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6.25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6.25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770
5	음료	커피(스타벅스, 최저가)	1잔	3.25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15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100
8	의료	항생제(파라세타몰)	10정(1g)	3.1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0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0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30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1회	48.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98 기준)	1L	1.82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49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0.500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7.000
17	여가	소주(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0.500
18	임금	최저임금(월별, Gross 기준)	법정최저	1759.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BIS School 기준)	연간	21974.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250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이다.

환전방법

벨기에는 한국과 달리, 현금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 지점이 많으므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환전해올 것을 권한다. 현금 환전 시에는 환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브뤼셀 시내에서는 그랑플라스 주변과 북역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호텔에서도 환전할 수 있으나 통상 5~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이 외, 현지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있는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 유럽 체크 카드만 받는 경우가 있다.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카드는 마스터, 비자 카드이다. 다만, 일부 식당 및 상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이 간혹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소지해두는 것을 권한다. 한편, 벨기에 체류 기간에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Card Stop(+32 078 170 170)에 즉시 연락해 카드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또는 한국의 카드 회사의 긴급 해외 연락처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통해 분실한 카드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서 타사 카드까지 분실 등록이 가능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벨기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출장, 여행 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 브뤼셀에는 지하철(메트로), 트램, 버스 등이 있으며, 주요 도시마다 버스나 트램이 운행된다. 기차 및 시내 대중교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대중 교통 이용 시 예상 이동 시간 보다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인 아침 9시 전후, 퇴근 시간인 5시 전후로 주요 고속 도로 및 시내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시간대에는 택시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버스

버스 및 트램 회사는 크게 STIB(프랑스어 권), De Lijn(네덜란드어 권)이 있는데, 브뤼셀에서는 STIB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티켓은 버스나 트램 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티켓보다 조금 비싼 편이다. 코로나 이후 SMS 티켓과 모바일 티켓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 STIB 일반 1회권 비용은 2.40 유로(종일권은 7.8 유로), De Lijn 사의 경우 2.5 유로(모바일 기준)이며 일정 시간 내 여러 번 경유가 가능하다. STIB와 De Lijn 모두 10회권 구매 시 1회권보다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며, 여러 명이 하나의 10회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택시

공항,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전 픽업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은 전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전화번호 : 02 349 49 49, 인터넷 : <https://taxisverts.be>). 기본요금은 6시부터 22시 사이에는 2.40 유로, 그 외 시간에는 4.40 유

로이다. 또한, 브뤼셀 시내에는 1km당 1.80 유로, 브뤼셀을 벗어나는 경우 1km당 2.7 유로의 요금이 발생한다.

일반 택시 이외에도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벨기에 우버 서비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 자가용 차량인 우버 엑스(Uber X), 고급 리무진 차량이 제공되는 우버 블랙(Uber Black), 4인 이상용인 우버 SUV(Uber Van)로 나뉜다. 우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visa, 마스터카드 등)를 등록해야 한다. 벨기에 인터넷 속도가 한국 보다 느릴 수 있으므로, 도착 후 우버 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출국 전 국내에서 미리 설치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 통신

핸드폰

벨기에 출장 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로밍 : 국내통신사의 로밍서비스를 이용.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핸드폰 번호가 바뀌지 않으므로 단기 출장에 적합하다.
- 유심카드 구입 : 벨기에 입국 전 국내에서 미리 유심카드를 구입 또는 벨기에 도착 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벨기에 도착해서 유심카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단말기가 현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이 외, 장기체류의 경우 핸드폰 기기 값이 포함된 약정제 또는 월 정액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벨기에의 주요 무선통신업체로는 Proximus, Base, Orange 등이 있는데 시내 곳곳에 지점이 위치해 있다. 비용은 통신사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략 20~30 유로의 요금제의 경우 10~15GB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벨기에 통신사별 요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spiroo.be/comparatif.php>

와이파이의 경우, 시내에 있는 카페나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이용범위가 매우 작고 속도가 느려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1개의 기기로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하고 노트북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를 출국 전 대여 후, 출장을 오는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 관광명소

◦ 브뤼셀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u Musee 9, 1000 Brussels
운영시간	화~금: 10~17시 주말: 11~18시
휴무일	매주 월요일
명소소개	브뤼셀 왕립미술관은 과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대신해 1801년 분관으로 지어졌다가 1831년 벨기에 독립 이후 벨기에 소유가 되었다. 총 6개 관에 걸쳐 고전 미술부터 현대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 약 2만 점을 전시하고 있다.
비고	전화: +32 02 508 32 11 홈페이지: www.fine-arts-museum.be

◦ 그랑플라스(Grand-Place)

도시명	브뤼셀
주소	Grand-Place de Bruxelles,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시내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브뤼셀의 상징이자 관광의 중심지이다. '큰 광장'이란 뜻의 그랑 플라스는 13세기의 대형 시장이 생기면서 발달했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랑플라스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칭했으며, 나폴레옹 쿠데타 당시 이곳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12세기부터 벨기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 광장은 가로 70m, 세로 110m 크기에 고딕,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조 건물과 광장의 모습은 17세기의 상공업 길드 시기에 갖춰진 것이다. 광장을 둘러싸고 사방의 건물들(시청, 길드 하우스, 왕궁과 여러 개의 주요 관청)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브뤼셀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골목을 돌아보면 브뤼셀 거리를 빠짐없이 볼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조명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조명 쇼가 펼쳐져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www.brussels.be/grand-place-brussels

◦ 아토미움(Atomi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Place de l'Atomium, 1020 Brussels
운영시간	월~일: 10~18시
명소소개	벨기에의 주요 랜드마크인 아토미움은 1958년 벨기에 브뤼셀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철의 원자구조를 165억 배로 확대한 형태로 건축됐다. 총 높이는 102m이고 지름 18m의 9개의 구(求)체가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12개의 모서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띄고 있으며 정육면체 꼭짓점에 있는 8개의 구가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통해 정육면체 가운데에 있는 구를 연결하고 있다. 이 중 일반인에게 개방된 5개의 구(求)에는 아토미움 역사와 배경에 관한 전시를 하는 상설전시관과 과학테마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단기 전시관이 있다.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가장 높은 구에는 브뤼셀 시내 및 외곽을 360도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도 갖춰져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비고	전화번호: +32 02 475 47 77 홈페이지: www.atomium.be

◦ 오줌싸개 소년 동상(Manneken Pis)

도시명	브뤼셀
주소	Jeanneke-Pis, Impasse de la Fidélité; 10-12, 1000 Bruxelle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오줌싸개소년 동상은 1619년에 조각가 제롬 뒤케누아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랑플라스와 함께 브뤼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이 동상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분수대 역할을 해왔으며, 17세기 말 루이 14세의 브뤼셀 포격에서 살아남은 이후로 브뤼셀에서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을 처음 보고 느낀 이미지는 초소형 크기의 동상으로부터 오는 실망과 초라함이지만, 이 동상은 브뤼셀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루이 15세가 동상의 악탈을 사과하는 의미로 프랑스 후작의 의상을 입혀서 돌려보내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국민들이 방문할 때 이 소년의 의상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특별한 날마다 다양한 옷을 선보이기도 하는 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은 약 900여 벌의 다양한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한복도 있다. 오줌싸개 소년의 의상 컬렉션은 그랑플라스에 위치한 왕의 집(Maison du Roi)안의 브뤼셀 도시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브뤼셀에서 쇼핑하다 보면 반 이상이 오줌싸개 동상으로 만든 병따개, 컵, 숟가락, 열쇠 고리 등의 상품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비고	홈페이지: www.brussels.be/manneken-pis

◦ 예술의 언덕 (Mont des Arts)

도시명	브뤼셀
주소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예술의 언덕이란 뜻을 지닌 이 정원은 브뤼셀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술의 언덕 주변은 한때 인구가 밀집한 거주 지역이었으나, 19세기 후반 레오폴드 2세 왕이 이 지역을 예술의 언덕으로 탈바꿈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적인 건축 건물과 대형 오픈 광장들이 옛날의 낡은 건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의 예술의 언덕은 국제회의장(Palais des Congres)과 왕립도서관(Bibliothèque Royal de Belgique) 사이에 펼쳐진 공원과, 곳곳에 나무와 분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주변에는 10여 개가 넘는 대형 갤러리와 박물관이 있어 브뤼셀의 떠오르는 문화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 악기 박물관 (Musical Instrument Muse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Montagne de la Cour 2, 1000 Brussels
운영시간	화~금요일: 9시 30분~17시 주말 및 공휴일: 10~17시
휴무일	매주 월요일
명소소개	벨기에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으로 지어진 이 악기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아온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약 7,000여의 악기종류와 악보들이 총 4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입장할 때 나눠주는 이어폰을 끼고 악기 옆에 서면 악기의 연주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다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건물의 마지막 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르누보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내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8유로, 학생 6유로, 어린이는 2유로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mim.be/

◦ 생 위베르 갤러리 & 부세 거리 (Galeries royales Saint-Hubert & Rue des Bouchers)

도시명	브뤼셀
주소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생 위베르 갤러리는 유럽 최초로 1847년에 문을 연 쇼핑가로 과거에는 왕과 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었다. 그랑플라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유리과 곡선형태의 철골 구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장이 인상적이다. 이 쇼핑 아케이드 안에는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 있다. 또한, 다양한 초콜릿 상점들이 모여 있어 브랜드 별로 초콜릿을 맛보거나 선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곳이다. 이 쇼핑가를 벗어나면 과거에는 정육점의 거리였지만 지금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부세거리가 나온다. 브뤼셀에서 유일하게 호객꾼이 있는 식당가이며, 벨기에의 명물인 훈합 요리가 이곳 식당가의 대표적 메뉴라 할 수 있다.

◦ 마그리트 미술관(Magritte muse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la Régence 3, 1000 Brussels
운영시간	화~금요일: 10~17시 주말: 11~18시
휴무일	매주 월요일
명소소개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벨기에의 대표적인 화가로 1898년 11월 21일에 벨기에 레신에서 태어나 1967년 8월 15일에 브뤼셀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가이나,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 자신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작품속에 배치하는 방식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사용하였다. 동 기법은 주로 신비한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에서의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대중매체의 많은 영역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영화 ‘매트릭스’는 마그리트의《겨울비(Golconde)》(1953)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본의 만화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그리트의 작품인《피레네의 성(Le chateau des Pyrenees)》(1959)과 《올마이어의 성(Almayer's Folly)》(1951)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musee-magritte-museum.be

◦ 브뤼헤(Brugge)

도시명	브뤼헤
주소	8000 Brugge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도심을 타원형으로 감싸 흐르는 수로와 50여 개의 다리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브뤼헤는 벨기에에서의 일정이 1박 2일 이상인 여행자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브뤼헤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브뤼헤는 9~13세기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운하가 발달된 무역지구로 자리 잡았고, 13~15세기에는 북서유럽의 경제적 수도였다. 16세기까지는 양조업의 대표지로 발달해 현재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중세 유럽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그마한 도시 브뤼헤는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공원을 자전거로 즐길 수도 있고, 아기자기한 운하 사이를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bezoekers.brugge.be/en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마. 식당

- 현지식당

○ 레흐 뒤 땡 (L'air du temps)

도시명	Éghezée
전화번호	081 81 30 48
주소	Rue de la Croix Monet 2, 5310 Éghezée
가격	런치 95 / 인 메뉴 150~210 / 인
영업시간	(수~일요일) 12~13시, 19시~20시 30분
휴무일	월, 화요일
소개	한국계 입양 미술랭 스타셰프가 운영하는 오너식당으로, 한국과 서양의 퓨전식 요리를 선보임 미술랭 투스타 식당
비고	홈페이지: http://airdutemps.be/

○ 쉐레웅(Chez Leon)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1 14 15
주소	Rue des Bouchers 18, 1000 Brussels
가격	20~40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23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200년 전통의 홍합요리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http://www.chezleon.be/

◦ 브라세리 드 로메강(Brasserie de l'&Ommegang)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1 82 44
주소	Grand-Place 9, 1000 Brussels
가격	20~40유로
영업시간	12~14시 6시~10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그랑플라스 위치, 벨기에 음식 레스토랑

◦ 르 페로켓(Le perroque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2 99 22
주소	Rue Watteeu 31, 1000 Brussels
가격	10~20 유로
영업시간	12~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가벼운 식사, 스낵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Leperroquetbruxelles/

◦ 메종 단도이(Maison Dandoy)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40 27 02
주소	Rue au Beurre 31, 1000 Brussels
가격	5~20유로

영업시간	9시 30분~22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벨기에 전통 과자인 스페쿨로스, 와플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https://maisondandoy.com

○ 노트니헤뇌(Nüetnigenough)

도시명	브뤼셀
주소	25 Rue du lombard, 1000 Brussels
가격	20~40유로
영업시간	월~금 17시부터 토~일 12시부터
소개	벨기에 전통음식점
비고	예약 불가 홈페이지: http://www.nuetnigenough.be/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한국식당

○ 한국관(Korean Barbecue Restaurant)

도시명	Tervuren
전화번호	02 308 88 92
주소	Leuvensesteenweg 147a, 3080 Tervuren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6~22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브뤼셀 근교 Tervuren에 위치한 식당으로, 저녁에만 운영하며 미리 예약을 하는 편이 좋다.

○ 서울식당(Seoul Restauran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3 17 25
주소	Rue Capitaine Crespel 14, 1050 Brussels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12~14시 / 19시~22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브뤼셀 시내 Louise에 위치한 식당으로, 단체석 마련이 가능하다.

◦ 하나식당(Hana Restauran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02 5241
주소	Rue Saint Boniface 21, 1050 Brussels
가격	15~25유로
영업시간	12~14 시 / 6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월요일 저녁만 영업
소개	배달 주문 가능

◦ 마루(Maru Restauran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346 11 11
주소	Chaussee de Waterloo 510, 1050 Brussels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12~14시 / 18시 30분~22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모던한 한식당을 표방하고 있으며, 브뤼셀 시내에 있다.

◦ 밥앤닥(Bap and Dak)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361 56 59

주소	Rue Lesbroussart 55, 1050 Ixelles
가격	15~20 유로
영업시간	수~토 : 18시~21시 30분
휴무일	월, 화, 일
소개	비빔밥, 김밥, 도시락 등 가벼운 음식류
비고	홈페이지: https://www.bapanddak.be/menu

◦ 이야기 (IYAGI)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647 58 47
주소	Rue Longue Vie 44-22, 1050 Ixelles, Belgium
가격	11~15 유로
영업시간	월~금 : 12시 ~14시 30분, 18시 30분~21시
휴무일	토, 일
소개	테이크아웃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iiiyagiii/

◦ 아리랑(Arirang Korean Barbecue)

도시명	안트워프
전화번호	03 232 2594
주소	Stationsstraat 8, 2018 Antwerpen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14시 / 18~23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안트워프에 있는 유일한 한식당이다.

◦ 강남(Gangnam Korean Restaurant)

도시명	와브르
전화번호	01 088 80 17

주소	Rue Provinciale 244, 1301 Wavre
가격	20~30 유로
영업시간	월~금 : 11시 30분~14시 30분, 18시~22시 30분 토~일 : 12시~14시 30분, 18시~22시 30분
비고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angnamkoreanrestaurant/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아르구스 호텔(ARGUS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Capitaine Crespel 6, 1050 Ixelles
전화번호	02 514 07 70
홈페이지	http://www.argus-hotel-brussels.com
숙박료	싱글: 약 120유로(조식 포함) 더블: 약 140유로(조식 포함)
소개	브뤼셀 시내 Porte de Namur(Naamsport) 전철역 근처에 있는 호텔

○ 힐튼 호텔(HILTON Hotel (Grandplace))

도시명	브뤼셀
주소	Carrefour de l'Europe 3,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48 42 11
홈페이지	http://www.hilton.com
숙박료	싱글: 약 120~350유로 더블: 약 160~400유로
소개	브뤼셀 중앙역 Bruxelles-Central(Brussel-Centraal)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

○ 노보텔 호텔(NOVOTEL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la Vierge Noire 32,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620 04 28

홈페이지	http://www.novotel.com
숙박료	싱글: 약 175유로 더블: 약 184유로 조식 15유로 추가
소개	브뤼셀 시내 De Brouckère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호텔

◦ 크라운 호텔(Crowne Plaza)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Gineste 3, 1210 Brussels
전화번호	02 203 6200
숙박료	130유로부터
소개	브뤼셀 호지에(Rogier) 역에 위치한 호텔
비고	홈페이지: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gb/en/brussels/brube/hoteldetail?cm_mmc=Google+Maps_-CP_-BE_-BRUBE

◦ 이비스 호텔(IBIS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Angleterre 2-20, 1060 Brussels
전화번호	02 620 0425
숙박료	70유로 정도
소개	브뤼셀 미디(Midi)역에 위치한 호텔
비고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3152/index.ko.shtml

◦ 더호텔(The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de Waterloo 38,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04 11 11
숙박료	싱글: 약 120 ~ 470유로 더블: 약 180 ~ 500유로

◦ 톤 호텔 (Thon Hotel Brussels Airport)

도시명	브뤼셀
주소	Berkenlaan 4, 1831 Diegem
전화번호	02 721 77 77
숙박료	일반: 81유로 슈페리어: 126유로
비고	홈페이지: www.thonhotels.com/hotels/belgium/brussels/thon-hotel-brussels-airport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게스트하우스

○ 호스텔 47 (Hostel 47 (Ghent))

도시명	겐트
홈페이지	http://www.hostel47.com
숙박료	27~30유로
비고	04 78 71 28 27

○ 호스텔 드 블라우풋 (Hostel De Blauwput (Leuven))

도시명	루벤
전화번호	01 663 90 62
홈페이지	http://www.jeugdherbergen.be
숙박료	29~30유로

○ 마이닝거 브뤼셀 시티 센터 (Meininger Brussels City Center)

도시명	브뤼셀
주소	Quai du Hainaut 33, 1080 Molenbeek-Saint-Jean
전화번호	02 5881 474
홈페이지	http://www.meininger-hotels.com
숙박료	15유로부터

○ 슬립웰 유스호스텔 (Sleep Well Youth Hos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u Damier 23, 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218 50 50
홈페이지	http://www.sleepwell.be
숙박료	24~30유로

○ 투고포 퀄리티 호스텔 (2GO4 Quality Hos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Emile Jacqmain 99, 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219 30 19
홈페이지	http://www.2go4.be
숙박료	18~29유로

○ 브뤼셀 파이스 시티센터 호스텔 (Brxxl 5 City Center Hos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Woeringen 5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502 37 100
홈페이지	http://www.brxxl5.com/
숙박료	17유로부터

○ 안트워프 시티 호스텔 (Antwerp City Hostel)

도시명	안트워프
주소	Grote Markt 40, 2000 Antwerpen
전화번호	03 500 50 40
홈페이지	http://www.antwerpcityhostel.be
숙박료	21~25유로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사. 치안

치안상황

코로나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가 4월 14일부로 해제되고, 벨기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유럽 지역의 여행주의보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 해외안전 정보 관련 외교부 링크 : <https://www.0404.go.kr/dev/main.mofa>

한편, 벨기에의 전반적 치안 상황은 안전한 편이지만 관광객들이 많은 브뤼셀 지역의 경우 단순 절도/도난 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브뤼셀 시내 중심에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등에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날치기, 소매치기,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양인 관광객은 주요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서는 안 된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지갑과 다른 가방에 넣고 하루에 쓸 돈만 따로 준비해, 만일에 있을 도난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가 길에서 말을 걸어도 모른다고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치기들이 종종 길을 묻는 척하면서 관광객이 길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릴 때 상대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공범이 소매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담조로 말을 붙이거나 손으로 얼굴과 몸을 톡톡 치면서 정신을 혼란케 하는 동안 소매치기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찰 정복 차림의 사기꾼 일당이 2~3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약 소유 여부를 검사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져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양한 소매치기 유형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당황해 가방을 맡기지 말고 동행해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호텔에서 체크인/체크아웃할 때, 또는 식당에서 식사 중일 때 중요 소지품을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는 등 경각심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자동차 단순 접촉 사고 시 우선 비상등 설치 등 안전조치 시행하고, 당사자 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를 소지하고, 보험회사에 송부한다. 상대방이 사고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불리한 입장으로 몰릴 때는 경찰(전화 101)의 도움을 요청한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외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된 긴급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야 한다.

- 긴급 출동 서비스 회사

The Royal Automobile Club de Belgique , 주소 : Rue d'Arlon 53, 1040 Brussels 전화 : 02 287 09 11 고장 서비스 전화 : 07 815 20 00

Vlaamse Automobilistenbond, VTB/VAB 주소: Pastoor Coplaan 100 - 2070 Zwijndrecht 전화 : 03 253 61 11 고장 서비스 전화: 070 22 40 30

Touring Club de Belgique , 주소: Rue de la Loi 44, 1040 Brussels 전화 : 02 233 22 02 고장 서비스 전화 : 07 034 47 77

한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번호 100이나 112번으로 전화를 걸면 구급차가 와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준다(화재신고 역시 동일 번호).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에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 경찰 분실신고서(여권분실·도난 시 관할지역 경찰에 신고한 후 교부되는 분실증명서)
- 여권분실 신고서(대사관 비치)
- 사진 2매(혹은 대사관에서 무료 사진촬영 가능)
- 수수료(단수여권 : US \$ 20상당 유로화, 여행증명서 : US \$ 25 상당 유로화)

지갑 분실로 경비 조달에 문제가 있을시, 대사관을 통해 해외 신속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 국내 외교부 영사 콜센터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긴급경비를 주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즉시 조달받을 수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00
- 범죄 신고: 101
- 의료: 앰불런스 서비스 100
- 교통사고 및 위급사항 발생 시: 112 (EU 전체 통용번호)
- 대사관 연락처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2) 2-675-5777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2) 476-45-75-06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벨기에 내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검색, 주거 희망 지역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검색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주거 희망지역의 주택 여부, 주택의 형태 및 기본적인 조건과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벨기에에는 다양한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데, 프렌차이즈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양한 매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영어에 능숙하므로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를 모를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집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벨기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벨기에에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더라도 막상 도착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벨기에 도착 후 바로 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도착 며칠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벨기에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때때로 면접 수준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세입자 보호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 조건들이 임대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 임대자들은 계약 전에 세입자를 까다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세입자의 재정 상황, 근로계약(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등), 신분(미혼, 기혼 여부)에 관련된 서류들을 요구하므로 벨기에에서 집을 구하기는 한국보다 더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한국과 같은 전세제도는 없으며 월세와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인은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정부 지표 내에서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이외의 비공식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계약 조건이 들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적용 중인 세입자 보호정책은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 세입 계약 기간은 3년이나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연장을 하려면 계약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본 세입 계약 기간인 3년 이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계약해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년 이전에 이사를 갈 때 3개월 치 월세, 2년 이전은 2개월 치 월세, 3년 이전은 1개월 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3년 이후에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해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 기간과 연장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한편 월세와 함께 운영되는 시설보증금 제도(Garantie locative)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 집을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 전과 퇴거 시에 집의 상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집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를 '에타 데 리유(Etat des lieux)'라고 부른다.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시설점검 전문가(Expert)가 임대인과 집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은 집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2년 5월 기준(3bed 아파트 경우) 155~400 유로 정도이다.

보통 입주 전 벽지 등 집 내부가 잘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이사를 나와야 한다. 임대인은 작은 생활 흔적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하거나 시설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시설보증금은 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며, 이를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임대인과 세입자의 이름으로 된 보증금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다른 한쪽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집 계약 종료 후, 임대했던 집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은행에 동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 예치된 해당 보증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가진다.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벨기에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에서 월세로 어느 정도 살아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구매 시에는 집 출생신고서, 전력량, 전기검사증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집 출생신고서는 집의 설계도면, 설립연도 등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문서이며 CPE(Certificat de performance energetique)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명서로 일반적으로 PEB(Performance Énergétique des Bâtiments)로 불린다. PEB는 A~G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A~G 등급으로 나뉘는데,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고 G로 갈수록 효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전기검사증(l'installation électrique)은 정기적인 전기검사를 통해 내부 전기시설에 이상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이다.

2021년 기준 벨기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5만 유로이며, 주택은 33만 유로이다. 다만 지역과 건물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지역 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브뤼셀 지방(45만~115만 유로), 플란더스 지방(26만~37만 유로), 왈로니아 지방(16만~27만 유로) 등 브뤼셀 지방이 타지방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나 브뤼셀 내에서도 동네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대략적인 가격만을 참고할 수 있겠다. 벨기에 부동산 가격은 매년 빠른 오름세를 그리고 있는데 2021년 전년대비 8.2% 상승했다.

월세 임대인 경우 브뤼셀에서 방 3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평균 1600~2천 유로 수준이다.

전화

집에 전화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동 통신회사에 접촉해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 또는 이전 세입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이다. 최근 유선 전화기만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인터넷, TV 등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식으로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회사로는 Proximus, Orange, Scarlet 등으로 시내 곳곳에 있는 서비스 지점 또는 업체별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브뤼셀 지하철역, 주요 관광지 등 공공장소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o 벨기에 주요 통신사 리스트(해외전용 url)
 - Proximus : www.proximus.be
 - Base : www.base.be
 - Mobile Vikings : www.mobilevikings.be
 - Orange : www.orange.be
 - Scarlet : www.scarlet.be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1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수

벨기에 수도물은 품질이 좋은 편으로 수도물을 마시는 현지인들이 많다. 다만, 수도물에 석회가 함유된 지역이 많아 불편한 경우 필터가 장착된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면 된다. SPA, Chaudfontaine 등이 벨기에의 대표적인 생수 브랜드이며, 슈퍼마켓 자체 PB(Private Brand) 제품들도 가격대비 품질이 좋아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 음식점 및 카페 이용 시 한국과는 달리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생수를 별도로 주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벨기에 체류 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렌터카, 리스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차를 구입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회사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전에 각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와 가격 등을 미리 알아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벨기에에서는 수동차량이 일반적이고 오토차량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토차량 구입 시 수동차량보다 1,000~2,500 유로 정도 더 비싼 편이다. 또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및 에어컨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의 경우, 여러 완성차 회사의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 광고를 보고 차주나 중개인 (dealer, garage)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은 후자 쪽이 20~30% 정도 비싼 편이며,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체 등록증과 차량 정기점검(Controle Technique)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차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차체 등록증과 차량 정기점검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일 경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유리하나, 장기간 차를 빌리고 싶은 경우 리스(lease)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특히, 임시거주자에게 있어 자동차 구입은 여러모로 쉽지 않지만, 리스카 이용은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되파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벨기에 내 모든 자동차는 첫 등록 이후 4년 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차량 정기점검(Controle technique)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자동차 등록증(Carte grise)을 압수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벨기에에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에서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단, 로터리는 예외). 그리고 트램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또한, 뒤쪽 좌석을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시내 제한속도는 50km/h, 고속도로는 120km/h이다. 또한, 학교 근처와 같은 특수 지역은 30km/h이다. 주차장 이용 시 시내에 있는 Interparking, Q-Park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가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영수증을 차량에 올려놓아야 한다. 요금은 시간당 2.5 유로 정도다. 운전 시에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증명서, 보험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해놓아야 한다.

○ 주요 자동차 회사 사이트(해외전용 url)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www.hyundai.be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 www.kia.com/be
- BMW, 홈페이지 : www.bmw.be
- Volkswagen, 홈페이지 : www.vw.be

○ 중고차 구매 참고 사이트(해외전용 url)

- Nearly New Car, 홈페이지 : www.nnc.be
- Cardoen, 홈페이지 : www.cardoen.be
- My Way, 홈페이지 : www.myway.be

○ 차량 수리 참고 사이트(해외전용 url)

- Monsieur Pneus : www.monsieurpneus.be
- Pneu Vanhamme : www.pneuvanhamme.be

차량가격

차량 가격은 차종별 매우 상이하지만, 현대차 I20 Hybrid 모델의 경우 22,000~28,000 유로선이며 투싼의 경우 30,000~ 35,000 유로

선이다(2022년 5월 기준)

운전면허 취득

벨기에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국으로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 벨기에에서도 6개월간 운전할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국제 면허증 필요 없이 영문 한국 운전 면허증만으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한국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번역공증본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서류준비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양국 당국의 협조로 다소 간소화되었다. 다만,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을 벨기에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필요하니 유의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방문, 운전면허 인증서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인증서와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 관할 구청인 꼬문을 방문, 교환신청을 하면 약 1주일 내로 벨기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만약 벨기에에서 신규 운전면허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벨기에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은 불어권 지역에서는 불어로, 네어권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어로 치러진다. 영어 통역을 거쳐 시험을 보는 날이 1년에 3~4번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지역 면허 시험장에 문의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벨기에 주요 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한국계 은행은 없다. 은행 수수료는 이용 카드(직불, 신용카드)에 따라 연간 40~100 유로로 다소 상이한 편이니 은행별로 제공서비스를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 국내 주요 은행

- BNP Paribas Fortis : 프랑스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현지 법인들이 많이 이용
- KBC (CBC) : 북부 플란더스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벨기에 은행이며, 왈로니아 지역과 브뤼셀 지역의 정식 명칭은 CBC
- ING : 네덜란드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Belfius : 벨기에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은행별 연락처

- BNP Paribas Fortis : 전화번호 : 02 762 20 00, 홈페이지 : www.bnpparibas.be
- KBC : 전화번호 : 078 152 154, 홈페이지 : www.kbc.be
- ING : 전화번호 : 02 547 21 11, 홈페이지 : www.ing.be
- Belfius : 전화번호 : 02 222 12 01, 홈페이지 : www.belfius.be

○ 은행별 수수료 비교사이트 : <https://www.comparatif-compte-bancaire.be/les-comptes-non-connectes>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 약속시각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설명 뒤에 바로 계좌를 열어준다. 만일에 대비해 출국 전 비자 발급 때 요구됐던 서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계좌와 함께 현금인출 카드도 받게 되는데, 카드는 보통 1주일 뒤에 우편물로 배달된다.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벨기에 내 거주 중인 집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 계약서가 없으면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체류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면 되지만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 신고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체류증 발급 시 은행에 다시 재방문해야 한다. 만일 체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은행 구비 서류: 집 계약서, 체류증(혹은 거주 신고 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벨기에 내 대표적인 은행으로 BNP Paribas Fortis, KBC, ING, Belfius 등이 있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거래하기 편한 곳에 약속을 잡고 계좌를 열면 된다. 방문 전에는 점심시간이 있는지 등의 업무시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9~16시까지가 업무시간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ISB)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Preschool,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Grade 1~12, 13
학비	34,500~40,625 유로(초·중·고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https://www.isb.be/
비고	미국계

o The British School of Brussels(BSB)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Kintergarten, Grade 1~13
학비	30,235~38,685 유로(초·중·고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https://www.britishschool.be/
비고	영국계

o European School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Kindergarten, Grade 1~12, 13
학비	10,000~20,000 유로(입학 조건 및 카테고리 별로 상이)
홈페이지	http://www.europeanschool.be/
비고	유러피안 스쿨

〈자료원 : 학교별 홈페이지〉

- 현지학교

○ 겐트 대학교 UGent

도시명	겐트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하며, 비EU 출신 학생의 경우 1,000~8,000 유로 수준
홈페이지	https://www.ugent.be/en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루벤 대학교 KU Leuven

도시명	루벤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하며, 비EU 출신 학생의 경우 1,000~8,000 유로 수준
홈페이지	https://www.kuleuven.be/kuleuven/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브뤼셀 자유대학 VUB(네덜란드어권)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하며, 비EU 출신 학생의 경우 1,000~5,000 유로 수준
홈페이지	https://www.vub.be/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자료원 : 학교별 홈페이지〉

마. 병원

○ UZ Leuven

도시명	루벤
-----	----

주소	Herestraat 49, 3000 Leuven
전화번호	016 33 22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uzleuven.be

◦ 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 St. Pierre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aux Laines 105,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35 3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stpierre-bru.be

◦ Hopital Universitaire Brugmann

도시명	브뤼셀
주소	Place A.Van Gehuchten 4, 1020 Brussels
전화번호	02 477 2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chu-brugmann.be

◦ Hopitaux Iris Sud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Jean Paquot 63, 1050 Ixelles
전화번호	02 641 4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his-izz.be/fr/hopitaux-iris-sud/infos-pratiques-et-contact/etterbeek-ixelles_3

◦ Clinique de L'Europe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Linthout 150, 1040 Brussels
전화번호	02 614 30 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cliniquesdeleurope.be
----	---

〈자료원 : 병원별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Maasmechelen Village

도시명	메스메헬렌(Maasmechelen)
주소	Zetellaan 100, 3630 Maasmechelen
홈페이지	https://www.tbvsc.com/maasmechelen-village/en
비고	벨기에 유일한 아울렛 단지

○ Gallerie INNO

도시명	벨기에 전역
주소	Avenue Louise 12 1050 Brussels(브뤼셀 지점)
홈페이지	https://www.inno.be/fr-be/
비고	벨기에 백화점

○ City 2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Neuve 123 - bte 402m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city2.be
비고	실내 대형 쇼핑몰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식품점

○ Marche de Midi

도시명	브뤼셀
주소	Avenue Fonsny, 1000 Brussels
취급 식료품	식품류/의류/잡화

비고	영업시간 6~14시 (일요일장)
----	-------------------

◦ 신라식품점

도시명	브뤼셀
주소	Chaussée de Wavre 1676 1160 Auderghem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자재 취급 슈퍼마켓
비고	영업시간 9~19시

◦ Rob The Gourmets' Marke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de la Woluwe 28, 1150 Woluwe-Saint-Pierr
취급 식료품	식품(정육점, 베이커리, 와인 등 고급식자재 전문판매점)
비고	홈페이지 https://www.rob-brussels.be/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기타 편의시설

◦ UGC

도시명	벨기에 전역
홈페이지	https://www.ugc.be/
소개	벨기에 체인 영화관

◦ Pairi Daiza

도시명	브뤼헤르뜨
주소	Domaine de Cambron B-7940 Brugelette
홈페이지	https://www.pairidaiza.eu/fr
소개	벨기에 최대 규모 동물원

◦ Therme Spa

도시명	스파
주소	Les Thermes de Spa Colline d'Annette et Lubin, 4900 Spa
홈페이지	https://www.thermesdespa.com/accueil/

소개	온천도시인 스파 지역 내 스파시설
----	--------------------

◦ Walibi

도시명	와브르
주소	Boulevard de l’Europe 100, 1300 Wavre
홈페이지	https://www.walibi.be/fr
소개	벨기에 놀이동산

◦ Aqualibi

도시명	와브르
주소	Boulevard de l’Europe 100, 1300 Wavre
홈페이지	https://www.aqualibi.be/en
소개	워터파크
비고	벨기에 놀이동산 Walibi 내 위치

◦ Ravenstein The Royal Golf Club of Belgium

도시명	테르뷰렌(Tervuren)
주소	Koninklijke Wandeling 1, 3080 Tervuren
홈페이지	https://www.rgcb.be/
소개	1905년 개장한 브뤼셀 근교 골프장

◦ Basic Fit

주소	벨기에 전역
홈페이지	https://www.basic-fit.com/
소개	벨기에 전역에 있는 헬스장 체인으로, 한 곳 가입시 전국의 모든 가맹점 이용 가능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년 연휴	2023-01-01	2023-01-01

성 목요일, 금요일	2023-04-07	2023-04-06
예수승천일 연휴	2023-05-19	2023-05-18
성탄절 연휴	2023-12-26	2023-12-25
벨기에 국경일	2023-07-21	2023-07-21
모든 성인의 날 연휴	2023-11-02	2023-11-01
성령강림절	2023-05-29	2023-05-29

〈자료원 : 벨기에 경제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브뤼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브뤼셀 무역관은 EU 본부가 위치한 슈만(Schumann)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EU 집행위 바로 옆 건물 3층), 세부 주소는 아래와 같다. 건물 도착 후 로비에서 방문처를 밝히면 무역관과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이 승인된다. 무역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방문일정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을 권한다.

- 주소: Rond-point Robert Schuman 11, 1040 Brussels, Belgium
- 전화번호: +32-2-203-2142
- 팩스: +32-2203-0751
- 이메일: kotrabru@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1) 브뤼셀 국제공항(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찾아오는 경우

- 기차
 - 공항 Level-1 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기차역과 브뤼셀 슈만역(Bruxelles Shumann) 간 연결되는 기차 편이 있으며, Brussels City로 가는 Airport Line을 이용
 - 운행시간: 오전 4시 40분~ 오후 11시 50분
 - 운행간격: 매 10분 간격 (직행은 매 시간 1대, 그 외 브뤼셀 북역(Bruxelles Nord) 경유)
 - 소요시간: 45분 내외(5개 정거장)
 - 요금: 9.30 유로(2등석 성인 기준)
- 택시
 - 공항 청사 앞에서 택시 승차
 - 소요시간: 약 30분(14km)
 - 요금: 약 30 유로
- 버스
 - 공항 Level-0에서 12번, 21번을 타고 종점인 브뤼셀 슈만역에서 하차
 - 소요시간: 40분~1시간

2) 브뤼셀 미디역(Gare du Bruxelles-Midi /Station Brussel-Zuid)에서 찾아오는 길

- 지하철(Metro)
 - 1호선 또는 5호선 슈만역(Shumann)에서 하차
- 택시
 - 역사 앞에서 택시 승차
 - 소요시간: 약 15분(6.6km)

- 요금: 15~20유로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